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조선 전기 제주 해안 방어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고재혁

2021년 2월

# 조선 전기 제주 해안방어 연구

지도교수 전 영 준

고 재 혁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고재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12월

A Study on the Jeju Coastal Defense in the Early  
Joseon Period

KO JAEHYEOK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21.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A Study on the Coastal Defense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e constant invasions of Japanese pirates inflicted enormous damage on Goryeo and Joseon and escalated into an international conflict as they gradually expanded their target areas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China. The issue of Japanese pirates, causing economic damage and diplomatic problems, led the Joseon government to consider defense strategies against them. In particular,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e pirates were not only engaging in invading activities, but also gradually establishing their bases in the coastal areas of Joseon. Japanese pirates sailed deep waters for their invading activities in China and they used the islands on the southwe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as military supply points. Among the islands, Jeju, the largest island on the peninsula, was a geographically important point that could function as an intermediate foothold as well as a supply point. Therefore, having recognized the geographic importance of reorganizing the defense facilities in Jeju, the Joseon government operated its coastal defense system with the installation of garrisoned posts (banghoso) and beacon fire stations (bongsudae) under the three fortress system since the reign of King Taejong. In addition, naval bases (sujeonso) were built on each garrisoned post and battleships were stationed there for the implementation of military strategies to simultaneously defend the coastal areas from both land and sea when the enemy landed.

It was when Jeju became a direct target of the pirates during Sampo Waeran (Japanese Riots in the Three Ports in 1510) and Eulmyo Waebyeon (Japanese Invasion of 1555) that this defense system was reorganized. During Sampo Waeran, the possibility was raised that the Japanese pirates, who had lost their base, would not return to their homeland and thus would invade Jeju. During Eulmyo Waebyeon, the pirates landed in Jeju and besieged Jeju Fortress for three days, which almost caused the fall of Jeju. Throughout the two incidents, three major changes were made in the defense system of Jeju: the reduction of the fortress, the relocation and merger of garrisoned posts,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beacon fire system.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Jeju's defense system seems to have established its own independent role as a defense system only. However, Hallasan Bongsu, another beacon fire station appearing in historical records and old maps, is identified to have been located in the current Wanggwanneung Parasitic Cone and to have functioned as a connection system between Jeju and the land, which had not been in place before.

Until now, the focus of research on defense facilities in Jeju has been fixed on their operation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is study therefore focused on the coastal defense facilities in the island to complement the relatively insufficient research on Jeju defense facilities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e fact that regular changes were made in the defense facilities shows that the Joseon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Jeju and was willing to defend its coasts. In addition, Hallasan Bongsu, which was temporarily installed and operated as a last resort for the defense of Jeju, demonstrates that the coastal defense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as organically implemented.

<Key words>

Jeju, Japanese pirates, coastal defense, garrisoned posts (banghoso), naval base (sujeonso), Hallasan Bongsu, Sampo Waeran, Eulmyo Waebyeon, Hwangeocheon, Honam Wonbyeong

## <목 차>

### Abstract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내용 .....	4
II. 왜구의 발생과 제주 방어의 필요성 .....	9
III. 조선 전기 제주의 관방시설 설치와 운용 .....	21
1. 조선 전기 제주 해안방어 전력의 강화 .....	21
2. 한라산 봉수의 置廢와 역할 .....	35
IV. 결론 .....	51
참고문헌 .....	56

## 표 · 그림 목차

<표 1> 『耽羅紀年』의 왜구 침입 사례 .....	18
<표 2> 한승순 啓에서 확인 되는 도내 병력 주둔지 .....	23
<표 3>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확인되는 제주 水戰所 .....	24
<표 4> 제주 지역별 방호소·수전소 .....	26
<표 5> 『세종실록지리지』의 제주 봉수 .....	27
<표 6> 사료 비교를 통한 조선전기 제주 봉수의 변화 .....	29
<그림 1> 남해안 주요 섬과 왜구 침입지 .....	19
<그림 2> 조선전기 제주 3성 및 방호소 .....	26
<그림 3> 『세종실록지리지』 근거 제주봉수 노선도 .....	28
<그림 4> 『東國輿地勝覽』 근거 제주봉수 노선도 .....	30
<그림 5> 『耽羅巡歷圖』 중 濟州操點의 烟臺 .....	38
<그림 6> 『耽羅地圖竝書』(이규성, 1709년)의 烟臺 .....	39
<그림 7> 『濟州地圖』(1700년대 초반)의 烟臺 .....	40
<그림 8> 『海東地圖-濟州三縣圖』(1750년경)의 烟臺 .....	41
<그림 9> 『耽羅地圖并識』(이원조, 1841년)의 烟臺 .....	42
<그림 10> 『東輿圖』(1800년대 후반)의 古烟臺 .....	43
<그림 11> 『濟州地圖』(1872년)의 古烟臺 .....	44
<그림 12> 왕관릉 원경 .....	45
<그림 13> 왕관릉 북쪽 기지국 .....	46
<그림 14> 기지국 주변 다듬어진 석재와 불에 탄 흔적 .....	46
<그림 15> 남해안에서 관측된 한라산과 해발 1600m고지 .....	46
<그림 16> 남해안에서 관측된 한라산 원경 .....	46



# I. 서론

## 1. 연구목적

왜구가 처음 등장한 1223년(고종 10)<sup>1)</sup> 이후 전 해안에 걸친 지속적인 침입은 어촌 마을의 피해와 경제적인 피해 및 행정체제의 혼란이 가중되었고, 조선 건국에도 영향을 미쳤다.<sup>2)</sup> 고려 말부터는 왜구의 중국 침탈도 빈번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명나라는 고려에 조서를 보내어 적극적인 왜구 방어를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고려가 왜구를 적절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명나라가 직접 왜구의 근거지를 토벌하러 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sup>3)</sup> 이러한 요구는 명의 왜구 정벌에 그치지 않고 고려를 침공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에 대해서 고려는 왜구 발생과 함께 1227년(고종 14)부터 사신 파견을 통해 일본과의 협력으로 왜구를 줄이고자 하였다. 일본 측에서도 1391년(공양왕 3년)에 이르러 큐슈의 정권을 잡은 원료준(源了浚)이 왜구를 잡아서 고려에 바치는 등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큐슈의 근거지를 잃어버린 세력들이 대마도로 이동하면서 海中을 오가며 발생하는 왜구 활동을 제압하는 완벽한 대책은 아니었다. 따라서 고려는 외교적 대응과 더불어 함대건조사업과 화포 개발 등의 전력 강화로 방어력을 높이면서도 대마도 정벌을 추진하여 왜구 근거지를 소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왜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조선에서도 왜구 활동은 지속되었다.

조선 전기의 왜구는 이전과 같은 활동으로 피해를 입혔지만, 그 이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경상도 연해 지역의 城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왜구는 일반적인 약탈행위에서 벗어나 조선 연안의 섬이나 城을 대상으로 거점을 확보하는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 범위 또한 경상도에서 점차 남해안과 서해안으로 넓히고 있었다. 이렇게 활동 범위가 확대된 것에는 약탈 및 침구의 대상을 중국으로 삼았던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1415년(태종 15)의 왜구 침략으로 2만여 명

1) 『高麗史』 卷22, 世家, 高宗 1年 5月 22日 甲子, “倭寇金州”.

2) 이영,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한국중세사학회, 2004, 103쪽.

3) 『高麗史』 卷135, 列傳, 禍王 11年 12月 未詳. “使臣又奉宣諭曰, “恁那里倭賊, 定害那不定害, 我待將軍船搶解倭賊海島去, 徑直過海到那里, 不知他那里水脉. 金州裝糧, 過恁地境, 著知路人指路, 到那里搶解了呵, 回來他來的口子裏, 昨營守禦.”

이상의 사망자와 登州 지역의 전함이 모두 全燒될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였다.<sup>4)</sup> 이에 따라 명나라는 조선에게 왜구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요구하였다.

왜구의 활동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으로 확대되면서 조선은 남해안을 포함한 海上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에 이르렀고, 우선적으로 수군 병력의 확대와 戰船의 확보로 戰力 상승을 꾀하였다. 이를 위해서 고려 때부터 왜구의 침입으로 황폐화되었던 연해지방의 재건으로 지역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기습 공격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에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조선은 태조와 세종대에 대마도를 정벌하기에 이르렀다. 근거지 공략에도 불구하고 왜구의 활동이 계속되자 3포개항의 유화정책으로 투화를 유도하였다.

조선의 왜구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유화정책으로 왜구의 약탈이 수그러드는 듯하였으나, 종종 때 강화된 우호정책으로 왜인들의 불만이 다시 고조되었다. 이것이 삼포왜란으로 이어지면서 왜구가 준동하는 계기가 되었고, 1555년(명종 10)에 발생한 을묘왜변으로 남해안 일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시기 왜구의 위협은 약탈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거지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점이다. 삼포왜란이 끝나고 근거지를 잃어버린 왜구들이 제주를 노리고 있었고, 실제로 을묘왜변 과정에서 왜구가 제주읍성을 포위하였던 사실은 왜구의 근거지 확보에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왜구들은 근거지인 대마도와 큐슈에서 입지가 약화되면서 새로운 근거지의 확보를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남해안의 여러 섬과 제주를 침입의 표적이 되었다. 특히 제주의 경우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섬이면서도 서해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물자공급지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왜구가 제주를 점령하게 되면 재탈환의 어려움과 함께 동북아시아 해역에 막대한 피해 발생의 여지가 많았다.

동북아시아 해역 상의 전략적 요충지 성격을 지닌 제주의 방어 전략은 이른 시기부터 조성되었다. 태종 때 제주읍성의 수축을 시작으로 대정현성과 정의현성의 설치는 북쪽으로 치우친 방어 전략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에 있었다. 이후 세종 때에는 제주 3성의 강화와 해안을 따라 설치된 방호소와 수전소를 개설하여 戰船을 배속하여 왜구 침입에 따른 수륙 양방향으로 견제가 가능하도록 관방시

4) 『太宗實錄』 卷30, 15年 7月 23日 戊午. “通事姜庚卿回自遼東啓曰: 七月初四日, 倭賊入旅順口, 盡收天妃娘娘殿寶物, 殺傷二萬餘人, 擄掠一百五十餘人, 盡焚登州戰艦而歸.” 上命崔閑傳教承政院曰: “倭寇中國數矣, 而今也爲甚. 帝若怒而欲征之, 則必有助征之命, 將若之何? 且我國交通日本, 倭使絡繹, 帝若知之, 則必歸咎我國, 亦將如之何?”

설을 체계화하였다.

조선 전기 설치·운영된 관방시설은 시기가 지나면서 변화상을 보였다. 우선 3성 중 정의현성의 경우에는 初築 지역이 방어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성읍으로 옮기고 방어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방호소는 방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성곽을 축조하였는데, 1439년(세종 21) 水山과 遮歸방호소에 처음으로 성곽이 축조되었다.<sup>5)</sup> 또한 왜구들이 제주를 노릴 수 있다는 염려에 따라 張琳목사는 別防과 같이 방어가 더욱 시급한 지역으로 방호소를 옮기거나 통합하여 방어력을 높이려고 하였다. 아울러 성곽이 축조되지 않은 방호소의 성곽 축조와<sup>6)</sup> 봉수대의 철폐와 추가 설치를 체계화하는 방어 전략의 변화가 있었다.

제주의 방어 전략은 3성을 중심으로 하여 해안가의 방호소와 봉수체계 그리고 수전소의 운용으로 왜구의 상륙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상륙하더라도 바다와 육지에서 협공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방어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사면이 바다인 제주는 적의 상륙지점을 예측하여 방호소를 설치하였지만 부족한 병력으로 인해 추가적인 방호소의 마련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을묘왜변 당시 방호소가 없었던 화북포로 왜구가 상륙하여 제주성을 포위했던 사실로 확인된다.<sup>7)</sup> 그리고 이때 3일간 공격당하던 제주성에 대한 주변 방호소나 수전소의 구원은 물론 호남원병의 지원이 없었다는 점은 이미 설치, 운용되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한라산 봉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거나 폐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제주와 육지간의 봉수체제에 대한 명종대의 논의에서는 제주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제주와 加里浦간의 봉수 연계가 확인된다.<sup>8)</sup> 즉, 제주와 육지 간의 봉수체계 수립을 통해 제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 방어 수단 이외의 지원 체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 위급 상황을 봉수로 알렸다는 기록을 통해 제주-가리

5) 『世宗實錄』卷84, 21年 閏2月 4日 壬午. “詢諸古老, 皆云: ‘旌義縣東牛峰、大靜縣西竹島, 自古倭船隱泊, 最爲要害之地.’ 右牛島隣近水山、竹島隣近西歸防護所, 竝無城郭, 儻倭賊犯夜突入, 則軍士無所依據, 應敵勢難. 請量宜築城, 以應敵變.”

6) 『中宗實錄』卷12, 5年 9月 16日 己巳. “水山, 遮歸二浦, 則仍舊城修築, 設坑坎木. 其餘七浦, 則本無城子, 守保無依, 至爲虛疎. 故依兩界例, 時方築城, 各其附近居民, 移接後出入農作.”

7) 『明宗實錄』卷19, 10年 7月 6日 戊戌. “濟州牧使金秀文狀啓: 六月二十七日, 倭賊無慮千餘人, 下陸結陣. 臣抄率驍勇軍七十人, 突入陣前, 相距三十步. 倭人中箭者甚多, 而尙未退兵, 定虜衛金直孫、甲士金成祖·李希俊、保人文時鳳四人, 馳馬突擊, 賊軍潰散. 有一倭將, 着紅毛頭具, 【盔也.】自恃其能射, 獨不退北, 正兵金夢根射中其背, 卽顛仆. 我軍乘勝追擊, 斬獲甚衆.”

8) 『明宗實錄』卷18, 10年 1月 11日 丁未. “且濟州有變, 則加里浦僉使救援事, 備邊司已議定矣. 然寇之強弱, 亦難遙度. 僉使入歸之後, 勢難獨救, 則不可不又有繼之者矣, 而若稟于朝廷而爲之, 則必經旬日, 事必稽緩. 直待濟州及加里浦之報, 次次入去事, 亦不可不預爲之計, 詳悉處置也. 且濟州燔柴, 則日晴之時, 可見於黃魚川等處云, 近來烽燧之事, 全廢不舉. 今若復踵前習, 則雖燔其柴, 萬無可援之理. 別定水使軍官, 逐日看望事, 不可不別爲措置也.”

포 간의 봉수체계는 어떠한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여러 고지도에서 등장하는 한라산봉수대는 어떤 역할이었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의 관방시설을 중심으로 해안 방어체제를 검토하고 이른 시기에 설치되어 운용되었을 한라산봉수대의 역할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체 방어로도 감당하지 못할 적의 침입에 대한 정부의 제주 지원 방법은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또 사료와 고지도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한라산봉수의 위치 비정과 置廢 및 역할을 검토하여 육지와 연계하는 봉수체계 구성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내용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기간 동안 왜구 활동에 대한 연구는 크게 왜구의 발생 등에 대한 것과 봉수체제의 연구로 대별된다. 왜구의 실체적인 모습에 주목하여 발생 양상과 한반도 내의 왜구 활동 그리고 왜구가 미친 국제적인 영향의 연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왜구의 실체 파악에 관해서는 단순히 이키섬, 쓰시마섬, 마쓰우라 지방 3도의 해민들을 왜구의 정체로 파악하거나, 고려인, 조선인 심지어 중국인이나 제주인이 왜구의 주체가 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연구가 확인된다.<sup>9)</sup> 여기에서는 왜구의 주체 및 발생 배경에 관한 선행 학설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①무장상인단說 ②경제적 원인說 ③고려의 토지제도 문란 및 대일 무역 제한說 ④몽고의 일본 침공에 대한 보복說 ⑤고려·일본인 연합說 ⑥고려·조선인 주체說 ⑦남북조 내란기의 아쿠토의 침구說 ⑧남조의 수군說 ⑨남조·북조의 무장세력說 ⑩큐슈의 난신說로 나누어 왜구의 주체와 발생에 대해 검토하였다.<sup>10)</sup> 이동현 또한 고려 시기 제주도인 왜구설과 같은 학설에 대해 검토하고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sup>11)</sup>

한반도 내 왜구의 활동에 관련해서는 이영과 같이 특정 지역에 관한 연구<sup>12)</sup>를 비롯하여 시기별로 왜구의 활동 변화가 연구되기도 하였다.<sup>13)</sup> 마산 지역을 특정화하

9) 이영, 「고려 말 조선 초 왜구=삼도(쓰시마이키마쓰우라) 지역 해민설의 비판적 검토」, 『일본문화연구』 38, 동아시아일본학회, 2011.

10) 이영,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대구사학』 91, 대구사학회, 2008.

11) 이동현, 「고려 후기 왜구의 발생과 실체 검토」,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2010.

12) 이영, 앞의 글, 2005.

13) 최근락, 「朝鮮初期 왜구의 침입양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09

여 시기별 침구 횡수를 분석하여 왜구의 정세와 비교하거나, 고려 말부터 세종대까지의 왜구침략 기사를 통해 상시 정세와 피해 상황을 분석하였다.

국제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원·명 교체기 시점을 중심으로 원과 명에 영향을 끼친 점을 분석하거나,<sup>14)</sup>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지 않으려는 고려와 조선의 왜구대책에 대한 연구가 있다.<sup>15)</sup> 또 임용한은 왜구로 인해서 고려의 海防論이 등장했고 이에 따른 고려의 전술 변화와 수군증강사업에 대해 연구로 이어졌다.<sup>16)</sup> 앞에 언급한 이동현의 경우 조선의 피해상황 서술과 더불어 태종~세종대의 왜구 대책을 검토하였다. 고려와 조선의 왜구와 관련한 연구에서 제주도를 포함하여 남해안과 서해안에 포진한 다수의 섬들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면서 해안 방어대책의 시급함을 논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선 건조와 수군 확대만으로는 제한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봉수와의 연계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우리나라 봉수제 연구는 조선시대 전국의 봉수노선에 대한 연구<sup>17)</sup>가 있다. 봉수노선은 5가지의 노선으로 구분되며 최종 수신은 서울 남산으로 모이게 된다. 봉수대 설치하는 조선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으로 중종대를 기준으로 함경도 152개소 이상, 강원도 30개소 이상, 황해도 24개소, 평안도 62개소 이상, 경상도 62개소 이상, 전라도 67개소 이상, 충청도 14개소, 경기도 17개소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8)</sup>

국경지역에 설치되었던 봉수는 京봉수, 內地봉수, 沿邊봉수로 구분되고 基幹봉수인 직봉과 보조봉수인 간봉이 포함되었다.<sup>19)</sup> 경봉수는 수도에 위치한 통신상의 최종 도착지이며, 내지봉수는 연변봉수에서 경봉수를 잇는 내륙지역 소재의 봉수이고, 연변봉수는 동·서·남해안 지역과 海中의 島嶼에 설치되어 煙臺라 불렸었던 최전방 변경봉수로 세분하여 정리하였다.<sup>20)</sup>

14) 崔韶子, 「元末 倭寇와 元·日關」, 『梨大史苑』 26,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92; 최준식, 「홍무-연간 명·일본의 해상무역과 왜구의 활동」, 『북원사림』 32, 경북사학회, 2014; 이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구」,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15) 윤성익, 「조선 초, 명으로의 왜구침구 정보 제공에 대한 조선의 태도-1419년의 왜구사건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54, 동국사학회, 2013; 김보한, 「고려조선의 對일본 외교와 왜구-13~15세기 금구 외교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7, 한일관계사학회, 2014.

16) 임용한, 앞의 글, 2005.

17) 김경추, 「조선시대 봉수체제와 입지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35권 3호, 한국지리교육학회, 2001; 김용욱, 「조선조 후기의 봉수제도」, 『법학연구』 44,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방상현, 「조선전기의 봉수제-국방상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史學志』 14, 단국대사학회, 1980; 허선도, 「우리나라의 봉수제도」,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및 강연회집』 1, 한국통신학회, 1990.

18) 김용욱, 위의 글, 2003, 128-132쪽.

19) 김경추, 위의 글, 2001.

20) 김주홍, 『조선시대의 연변봉수』, 한국학술정보(주), 2010.

현재까지 우리나라 봉수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조선시대에 국한되고 있으며, 봉수제도가 처음 시작된 고려시대에 관한 연구도 제한적이거나 확인할 수 있다.<sup>21)</sup> 고려시대 봉수를 추적한 홍영호의 연구에서 成는 고려시대 봉수의 전신이 되는 시설물로 추정하였으며, 고려시대 전방에 설치되어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sup>22)</sup> 成는 감시의 목적과 함께 1차 방어의 개념을 가진 일종의 소규모 주둔지의 성격이어서, 봉수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成의 입지가 봉수지와 일치하는 사례를 통해 고려 정부가 이른 시기부터 왜구에 대한 감시체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파악하고 있다.<sup>23)</sup>

김주홍은 조선전기 『慶尙道地理志』에 기록되어 있는 남해안 일대 129기의 봉수가 조선시대에 설치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봉수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sup>24)</sup> 이외에 대부분의 봉수제도 연구는 노선과 입지에 대한 연구와 봉수제도의 문제점<sup>25)</sup> 등을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에 설치되었던 봉수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제주 봉수 연구는 『高麗史』의 기록에서 다른 관방시설보다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등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논의된 전체 관방시설의 일부 또는 조선후기에 집중되어 있다.<sup>26)</sup> 최근 문화재 보호에 따른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 계획<sup>27)</sup>과 제주에 산재한 봉수들의 이름에 대한 풀이 정도가 있을 뿐<sup>28)</sup> 위치·형태·관측범위·역사적 의미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1) 김주홍, 『한국의 연변봉수』, 한국학술정보(주), 2007; 김주홍, 앞의 책, 2010. 김주홍은 두 권의 책에서 남해안 일대의 봉수들 중 일부를 고려시대 초축으로 비정한 바 있다.; 홍영호,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成조사 연구-간성과 강릉을 중심으로」, 『군사』 99, 2016. 홍영호는 成를 통해 수의 입지와 봉수의 입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22) 이기백,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68, 261-263쪽.

23) 홍영호, 앞의 글, 2016.

24) 김주홍, 위의 책, 2010, 30-34쪽.

25) 李存熙, 「봉수제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조선시대를 중심으로」, 『文化史學』 11, 한국문화사학회, 1999. 봉수군의 인적자원 부족, 근무태도의 문제, 연대의 위치 문제 등을 토대로 봉수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26)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 읍성·진성과 봉수·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김일우, 「조선시대 제주 관방시설의 설치와 분포양상」, 『한국사학보』 65, 고려사학회, 2016; 신효승, 「조선후기 제주도의 관방체계」, 『역사와 실학』 59, 역사실학회, 2016.

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 계획』, 2015.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연대의 경우 원형에 대한 조사 없이 2000년대에 복원이 진행되면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모습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서술하였으며, 봉수의 경우 제주도내 문화재 지정사례가 없어 보존, 보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어 보존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8) 오창명, 「제주의 봉수 이름 연구」, 『語文學』 95, 한국어문학회, 2007.

제주 관방시설에 대한 연구는 극히 일부만 이루어졌다. 김일우와 김명철의 연구는 제주의 관방시설 설치와 분포양상에 대해서 나열했으나 관방시설의 명칭이나 설치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선 후기 완성된 관방시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조선 전기의 초기 관방시설의 설치상황이나 변화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조선 후기의 제주 관방체계에 맞춰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주의 방어는 자체 방어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봉수의 경우에도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방시설 연구에서 일부분으로만 연구되어 제주의 관방체계에 부속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김일우의 경우 연대와 봉수의 분포상황이 너무 뻘뻘하다는 점과 연대와 봉수의 烽軍과 煙軍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연대와 봉수가 군사적 기능을 행한 예를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와 봉수의 설치는 군사적 기능 이외에도 제주도민에게 계엄적 분위기를 자아냄과 동시에 통제의 효과를 기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파악하였다.<sup>29)</sup> 신호승의 경우 봉수와 연대의 활용이 제주방어에 있어 1차 감시체제로 방어를 성공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로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를 통해 봉수-연대-진의 체계를 통해 적을 감시하고 추적하여 상륙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주만의 자체적인 방어 작전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 18세기에 완성된 체계를 예시로 들고 있어 연계 체계가 정착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전기의 방어상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자체방어가 필요했던 이유를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수군을 유지할 수 없는 제주의 경제적 요인과 제주를 지원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논점은 역으로 판단할 때는 자체방어가 완성되기 전에는 지원 체계가 존재했으나 효율적이지 못하고 제주의 경제가 따라주지 못해 자체방어라는 전략으로 변화되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제주의 관방시설의 연구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에 맞춰져 있거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나열하듯이 연구가 되고 있어 조선 전기 관방 시설의 체계와 변화상은 파악해 볼 수 없다. 조선전기 제주 방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방시설의 설치와 함께 구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방시설은 시기별로 추가로 설치가 되거나 보완이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의 방어에 관해서 정부가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게 된다. 지리적 요충지인 제주의 경우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른 시기

29) 김일우, 앞의 글, 2016, 308-309쪽.

부터 존재해 왔으며, 특히 을묘왜변의 과정에서는 제주읍성이 적에게 함락될 뻔 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주목할 점은 을묘왜변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의 논의 중 제주의 지원 체계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 전기 관방시설의 체계와 변화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제주의 부족한 방어 상태에 대해서 육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실존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II 장에서는 한반도를 약탈하던 왜구가 점차 중국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탐구하여 왜구가 한반도 내에서만이 아닌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왜구의 등장을 통해 서남해안권에서 제주의 지리적 중요성을 분석하고 제주 방어가 필요했던 논리에 대해서 확인하겠다.

III 장에서는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耽羅紀年』과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과 더불어 『南宦博物』, 『南槎錄』, 『增補耽羅誌』 및 『耽羅巡歷圖』를 비롯한 제주의 고지도를 통해 조선 전기 제주의 관방시설의 체계와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지 않았으나 기록에서 확인되는 ‘한라산봉수’는 제주를 지원하기 위한 연락 수단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한라산봉수’의 실존여부와 위치비정 및 노선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사료를 기반으로 하여 ‘한라산봉수’의 운영과 치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II. 왜구의 발생과 제주 방어의 필요성

왜구의 활동은 1223년(고종 10)에 금주를 침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sup>30)</sup> 초기의 왜구는 단발적이며 소규모로 고려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못했지만, 본토인 큐슈가 내란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 되면서 본격적으로 약탈 활동이 시작되었다.<sup>31)</sup> 이후 1350년을 기점으로 왜구는 ‘경인년 왜구’라 지칭되며 이전의 왜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高麗史』에서도 ‘왜구의 침략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sup>32)</sup>고 표현할 정도로 135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이었다. 이때부터 왜구는 고려가 멸망하는 1392년까지 300회에 걸쳐 남해안을 침입하였다. 왜구는 잦은 빈도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고려에게 있어서 더욱 위협이 되었던 점은 집단화된 세력으로 약탈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었다.

1380년(우왕 6)에 鎭浦에 침입한 왜구는 5백 척에 달했다.<sup>33)</sup> 대규모의 왜구는 정예 기병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정규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왜구와의 전투에서 노획한 말이 1,600여 필이라는 기록은 왜구들의 기병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약탈에서 벗어나 楊廣道를 공격하여 최영이 이끄는 정예군이 개경을 벗어나면 역으로 개경을 함락시키고자 하는 성동격서의 전술도 보였다.<sup>34)</sup> 따라서 왜구는 단순 약탈에서 전략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탈이 심화되고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침략 범위를 확장하면서부터 고려에게 있어 왜구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元史』에 따르면 1358년(至正 18) 이래로 왜구가 연해지역에 대해서 연이어 침략했다는 기사가 확인된다.<sup>35)</sup> 간접적으로는 원 중서성이 왜구의 진격로를 막아달라는 문서에서는 왜적이 노략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를 경유할 것이니 사전에 막아달라는 것이었다.<sup>36)</sup> 이러한 양상은 원나라 이후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

30) 『高麗史』 卷22, 世家, 高宗 1年 5月 22日 甲子, “倭寇金州”.

31) 김보한, 「“가마쿠라기 왜구”와 “무로마치기 왜구”의 비교 연구」, 『史學志』 49, 단국사학회, 2014, 157-158쪽.

32) 『高麗史』 卷37, 世家, 忠定王 2年 2月 未詳. “倭寇固城·竹林·巨濟, 合浦千戶崔禪, 都領梁瑄等, 戰破之, 斬獲三百餘級, 倭寇之侵, 始此.”

33) 『高麗史』 卷126, 列傳, 姦臣, 邊安烈傳, “...倭賊五百艘, 入鎭浦口...獲馬一千六百餘匹, 兵仗無算...”

34) 『高麗史』 卷126, 列傳, 姦臣, 王安德傳, “...吾等議, 若侵楊廣諸州, 崔瑩必帥師而下, 於是乘虛, 直擣京城, 可圖也...”

35) 『元史』 卷46, 本紀, 順帝九 至正 二十三年 八月 丁酉. “自十八年以來, 倭人連寇瀕海郡縣, 至是海隅遂安.”

가지였다. 명은 건국 직후 국가 체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양면의 적과 대치하고 있었다. 원의 수도인 大都를 점령한 뒤에도 명은 복원을 타도하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하였다. 그러므로 명은 고려와 일본에게 왜구 금압을 요구하는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왜구의 침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명은 완곡한 표현을 하였지만, 이내 왜구의 침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홍무제는 고려에게 왜구 금압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요구하였다.<sup>37)</sup>

왜구 문제로 고려는 이전 시기부터 朴寅을 파견하여 일본과 협력하여 왜구를 줄이려는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sup>38)</sup> 이에 대해 일본에서도 왜구를 잡아서 바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① 日本九州節度使 源了浚이 사신을 보내어 來朝하며 토산물을 바치고, 포로로 잡힌 우리 남녀 68인을 돌려보냈다. 侍中에게 글을 올려 이르기를, “제가 貴國을 향해 진심으로 잘 사귀고자 한 지가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기사년(1389) 10월 사이에 적을 금하게 하라는 명령을 공경히 받들어 여러 섬의 賊黨을 금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승려 周能이 글을 가지고 오기를, ‘해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으니, 만약 엄격하게 금지시키지 않는다면, 피차가 손상될 일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하니, 제가 도리어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분한 마음도 있어 여러 도에 사신을 보내어 해적을 붙잡아 왔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귀국의 여러 재상들이 제 마음을 살피셔서 길이 화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sup>39)</sup>

원료준[今川了俊]이 큐슈의 정권을 잡고 고려와 연계해서 대마도로 세력을 옮기는 왜구들을 없애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왜구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고려에서는 전력 강화를 위해 최영에게 전권을 주고 전함을 건조하게 하였다.<sup>40)</sup> 총

36) 『高麗史』卷41, 世家, 恭愍王 16年, 5月 乙巳. “乙巳 元中書省 遣直省舍人乞徹, 牒曰, ‘倭賊入寇, 必經高麗, 宜出兵捕之.’”

37) 이영,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왜구 -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 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193-213쪽. 고려에 처음으로 왜구에 대한 조서를 보낼 때에는 2건의 왜구 침략이 있었으나, 이후 1370~1373년에 7차례에 걸쳐 16지역에 침략이 있었다.

38) 『高麗史』卷22, 世家, 高宗 14年 2月 미상. “是歲, 遣及第朴寅, 聘于日本. 時, 倭賊侵掠州縣, 國家患之, 遣寅賫牒, 諭以歷世和好, 不宜來侵. 日本, 推檢賊倭, 誅之, 侵掠稍息.”

39) 『高麗史』卷46, 世家, 恭讓王 3年 8月 9日 癸亥. “日本九州節度使源了浚, 遣使來朝, 獻方物, 歸我被擄男女六十八人. 上侍中書曰, ‘予向貴國 盡心交好, 今四十年矣. 越己巳十月間, 敬奉禁賊之命, 以禁諸島賊黨. 於前年十月, 周能僧, 陪來書曰, ‘海賊今猶未絕, 若不堅禁, 彼此恐有損傷之事.’ 予反爲慚愧, 稍有憤志, 遣使諸島, 捕捉海賊. 伏冀貴國大相各位, 俯鑑愚衷, 永爲和好.’”

40) 『高麗史』卷44, 世家, 恭愍王 22年 10月 7日 乙亥. “冬十月 乙亥 以贊成事崔瑩爲六道都巡察使, 黜陟將帥守令, 籍軍戶, 造戰艦, 有罪者, 皆令直斷.”

2,000척의 배를 건조하였고<sup>41)</sup>, 최무선에게 화포를 개발하도록 하여 전력상승을 통한 왜구방어를 추진하였다.<sup>42)</sup> 하지만 단위전력의 상승만으로 기습적으로 출몰하는 왜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는 본거지인 대마도 정벌로 왜구를 소탕하고자 하였다.<sup>43)</sup> 그리하여 추진된 대마도정벌에서 왜선 300척을 불사르고 왜구의 근거지를 불태웠다.<sup>44)</sup>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왜구의 문제는 종식되지 않았고,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1396년(태조 5)에 왜구들은 일반적인 약탈·방화·납치에서 벗어나 동래·기장·동평성<sup>45)</sup>·영해성<sup>46)</sup>을 함락하면서, 왜구의 활동이 거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변화를 꾀하였다.<sup>47)</sup> 태조~세종대까지 119차례의 침범에서 병선 47척 이상과 조운선 16척 및 조운미 4,090석을 강탈당했다. 또 방화로 인한 병선 손실은 65척에 이르렀다. 수군 등 312명 이상이 전사하는 등 조선 초기 51년간의 손실은 막대하였다.

왜구는 濟州·洪州·宣州·長淵·襄津에서 부녀자들을 나포하였고<sup>48)</sup> 제주를 비롯하여 서해안을 중심으로 수년에 걸친 침략행위를 일으켰다. 또한 왜구는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을 주요 목표로 하여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② 通事 姜庾卿이 요동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7월 초4일에 倭賊이 旅順 항구에 들어와 天妃 娘娘殿의 보물을 모조리 거두고, 2만여 인을 殺傷하고 1백 50여 인을 노략질하고, 登州의 전함을 모두 불사르고 돌아갔습니다.” 하니, 임금의 崔閑에게 명하여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왜적이 중국을 侵寇한 것이 여러 번인데 이번이 가장 심하다. 황제가 만일 노하여 정벌하고자 하면 반드시 정벌을 도우라는 명이 있을 것이니, 장차 어찌 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가 일본과 교통하여 倭使가 계속 잇달아 오니, 황제가 만일 알면

41) 『高麗史』 卷83, 志37, 兵三 船軍. “六道都巡察使崔瑩, 造船二千, 欲以六道軍, 騎船捕倭, 百姓畏懼, 破家逃役者, 十常五六, 及准提等建議, 事遂寢.”

42) 『高麗史』 卷133, 列傳, 禍王 3年 10月 丙申. “十月 始置火燭都監, 從判事崔茂宣之言也. 茂宣與元焰 焰匠李元同里閭, 善遇之, 竊問其術, 令家僮數人, 習而試之, 遂建白置之.”

43) 『高麗史』 卷137, 列傳, 昌王 元年 2月 丙申. “慶尙道元帥朴葦擊對馬島.”

44) 『高麗史』 卷116, 列傳, 諸臣, 朴葦傳. “...又以戰艦百艘, 擊對馬島, 燒倭船三百艘及傍岸廬舍殆盡...”

45) 『太祖實錄』 卷10, 5年 8月 9日 甲午. “倭百二十艘入寇慶尙道, 奪兵船十六隻, 殺水軍萬戶李春壽, 陷東萊, 機張, 東平城.”

46) 『太祖實錄』 卷10, 5年 8月 23日 戊申. “倭陷寧海城.”

47) 최근락, 「朝鮮初期 왜구의 침입양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09, 11쪽.

48) 『太宗實錄』 卷17, 9年 2月 18日 辛卯. “辛卯/倭船十四隻, 至豐海道 長山串, 以婦女十七名, 屬彌羅山 烽卒而去. 倭自上國之境至此, 捕烽卒朴基, 問以事變, 知國家有備, 佯示和好之意, 以去年夏所掠濟州, 洪州, 宣州及長淵, 瓮津婦女, 給糧下陸, 乃向白翎島而去. 豐海道都節制使金繼志以報, 上曰: “此賊出來累年, 必欲還歸本土. 令各浦兵船, 會於一處待變. 其中刷出輕快兵船, 隱泊諸島, 追捕賊船.”

반드시 우리나라에 허물을 돌릴 것이니, 또한 장차 어찌할 것인가?”<sup>49)</sup>

1415년(태종 15)의 왜구는 중국의 旅順지역을 침입하여 2만여 명을 죽이고 150명을 납치했으며, 登州지역의 전함을 모두 불태웠다는 보고를 받은 태종은 왜적이 중국을 빈번하게 침입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일본이 통교했던 사정을 알게 되면 명황제의 분노가 조선에 미칠 것임을 우려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도 왜구의 피해로 인하여 명나라가 직접 왜구의 본거지를 토벌하고자 하였던 사실에서<sup>50)</sup> 조선이 왜구를 방어하지 못하면 명의 정벌이 예측되어 조선까지도 위협에 처할 수 있음을 염려하는 상황이었다.

왜구의 중국 침탈은 세종대에 조선을 침탈했던 규모보다 더욱 크게 확대되고 있었으며,<sup>51)</sup> 왜구 또한 자신들의 목표가 한반도가 아닌 중국이라고 직접 밝히면서 조선을 더욱 압박하였다.<sup>52)</sup> 이것은 중국 침략의 보급거점으로 조선 연안의 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조선의 서남해안과 연해지역의 섬들은 장기간 항해에 필요한 물과 식량을 보급할 수 있는 중간기착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의 왜구 방어 대책은 선제적으로 피해를 막음과 동시에 명나라와의 외교적인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책이 요구되었다.

조선 전기의 왜구 방어 대책은 전조인 고려와 마찬가지로 외교적인 대응과 무력대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교적으로 태조는 원료준과의 교류를 통해 왜구에게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려받고<sup>53)</sup> 그에게 왜구의 활동을 금지하는 협력을 요청하였다.<sup>54)</sup>

49) 『太宗實錄』 卷30, 15年 7月 23日 戊午. “通事姜庚卿回自遼東啓曰: 七月初四日, 倭賊入旅順口, 盡收天妃娘娘殿寶物, 殺傷二萬餘人, 擄掠一百五十餘人, 盡焚登州戰艦而歸.” 上命崔閑傳教承政院曰: “倭寇中國數矣, 而今也爲甚. 帝若怒而欲征之, 則必有助征之命, 將若之何? 且我國交通日本, 倭使絡繹, 帝若知之, 則必歸咎我國, 亦將如之何?”

50) 『高麗史』 卷135, 列傳, 禍王 11年 12月 미상. “使臣又奉宣諭曰, “恁那里倭賊, 定害那不定害, 我待將軍船搶解倭賊海島去, 徑直過海到那里, 不知他那里水脉. 金州裝糧, 過恁地境, 著知路人指路, 到那里搶解了呵, 回來他來的口子裏, 趲營守禦.”

51) 『世宗實錄』 卷2, 卽位年 12月 11日 丙戌. “今聞島倭三百餘隻, 欲寇上國, 無乃構釁於我? 是不可不慮也.”

52) 『太宗實錄』 卷4, 1年 5月 13日 丁巳. “本月十一日, 助戰節制使李思儉與萬戶李德生, 以兵船五艘, 候賊于海州之延平串, 賊船三十八艘乘霧暗突至圍之, 逼脅求糧, 語思儉等曰: ‘我等非爲朝鮮來, 本欲向中國, 因絕糧而至此, 若給我糧, 我當退去矣. 前日都豆晉串之戰, 非我也. 汝國人先下手, 故我不得已而應之爾.’”

53) 『太祖實錄』 卷6, 3年 7月 13日 丙戌. “日本國九州節度使源了俊使者, 與我所遣僧梵明來, 歸我被擄男女六百五十九人. 梵明持猿子以獻, 命置司僕寺.”

54) 『太祖實錄』 卷6, 3年 10月 11日 丁丑. “朝鮮國門下政丞趙浚等奉復日本國節度使源公座下. 賤介之還, 得奉芳翰, 就審動履康裕, 爲慰. 茲者, 被擄人七百名, 俱蒙發遣, 獲還鄉里, 爲惠已極. 且云: “未得還者, 漸聚送之. 又欲禁賊, 期於兩國永無間隙, 通好之誠, 至爲深篤, 喜感何涯! 比來, 本國水軍將帥累擒海賊, 請以舟師, 往捕餘黨, 朝議將許之, 適承來諭乃寢. 儻如尊教, 嚴明號令, 討除兇盜, 永絕邊患, 豈不美哉! 珍貺之惠, 益以爲感. 今遣工曹典書崔龍蘇, 往修報禮. 不腆土宜, 具如別幅, 惟冀領納.”

이러한 노력에도 왜구는 없어지지 않았고 원료준도 일기도와 대마도의 왜구에 대해서 진압노력은 하고 있으나, 완전히 소탕할 수 없다고 밝혔다.<sup>55)</sup> 이에 따라 태조는 1396년(태조 5) 12월에 대마도 정벌을 계획하였다.<sup>56)</sup>

태종과 세종대에도 여전한 왜구의 침략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방책이 필요하였고, 수군 병력의 확보, 군선 건조, 수군 체계와 진영의 확보를 통해 방어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수군 병력은 전체 병력 96,259명 중 49,337명을 수군으로 편제하여 전체 병력의 51.2%를 유지할 정도로 수군의 비중을 높였다. 또한 당시 수군은 3정 1호를 기준으로 봉족까지 합하면 수군역에 편제된 인원은 15만 정도로 조선에서 수군의 의존도를 파악할 수 있다.<sup>57)</sup> 또한 고려 말 황폐화되었던 연해지방의 재건과 안정화를 통해 왜구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sup>58)</sup> 또한 군선의 추가 건조를 통해 태종대에는 428척, 세종대에 이르러서는 829척의 군선을 확보하였다.<sup>59)</sup> 이를 통해 수군의 집결지를 확보하고 병력과 군선을 충분히 배치하여 대규모의 침입에 대응하는 연해지방을 확보하였다. 또 소규모의 침입에는 왜군이 상륙하면 육군과 수군이 구원병으로 나서고 병선은 바다에 포진하여 견제하는 수륙협동체제의 전략을 구사하였다.<sup>60)</sup> 병력과 전선의 준비를 통해 연해지방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 왜구의 남해안 약탈을 방지하며 나아가 중국으로의 진출로를 막는 방책이었다.

방어책의 준비와 동시에 세종대에는 태조와 마찬가지로 왜구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대마도의 정벌을 통하여 근원을 없애고자 하였다.<sup>61)</sup> 하지만 왜구는 대마도정벌 이후 1421년(세종 3)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 때문에 세종은 근거지를 점령하거나 방어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왜구를 회유하기 위해 3포를 열

55) 『太祖實錄』 卷8, 4年 7月 10日 辛丑. “日本回禮使崔龍蘇與九州節度使源了俊所遣僧宗俱來, 歸我被虜男女五百七十餘口, 遣禮賓卿宋得師迎勞之. 其書曰: 日本國鎮西節度使源了俊奉書朝鮮國兩侍中相公閣下. 貴使工曹典書崔龍蘇之來, 所賜尊教, 焚香拜讀, 伏承動止勝常, 欣忭不已矣. 就而名土佳貺, 如數拜受, 遠意之厚, 感謝多矣. 蒙諭禁賊之事, 罄力於一岐, 對馬, 已久矣. 海中寇賊, 以舟爲家, 從風便無著落之處, 今比于舊日, 賊輩十之八九減少焉. 若又以官軍將帥, 別開異途, 恐絕通好之路. 諺云: “賊是小人, 智過君子.” 彼所計謀之智略, 雖云聖賢, 或有未及之處. 仰願放寬, 等我做拙計, 必無嚙類, 方宜陪兩國之款懷哉 被虜男女, 嚴加推刷, 隨得可伴送, 不敢拘留也.”

56) 『太祖實錄』 卷10, 5年 12月 3日 丁亥. “以門下右政丞金士衡爲五道兵馬都統處置使, 以藝文春秋館太學士南在爲都兵馬使, 中樞院副使辛克恭爲兵馬使, 前都觀察使李茂爲都體察使, 聚五道兵船, 擊一岐、對馬島.”

57) 임용한, 「조선 건국기 수군개혁과 해상방어체제」, 『군사』 7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67쪽.

58) 임용한, 위의 글, 2009, 77쪽.

59)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5-조선전기 I』, 경인문화사, 2012, 397-398쪽 표 참조.

60) 임용한, 위의 글, 2009, 72-73쪽.

61) 『世宗實錄』 卷4, 1年 6月 19日 壬辰. “是日巳時, 李從茂自巨濟南面周原防浦發船, 復向對馬島.”

어주면서 왜인의 거주를 허가했다.<sup>62)</sup> 또한 왜인에게 투화를 권유하고<sup>63)</sup> 투화한 왜구에게는 쌀과 술 등을 나누어주는 것<sup>64)</sup> 등을 통해 왜인들을 조선 안에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였던 왜구들에게 유화정책을 실시하자 드디어 그 활동을 멈추게 되었다.<sup>65)</sup>

세종대 대마도정벌 이후 조선은 왜구활동을 막기 위해 대마도 왜인들을 회유하는 정책과 관직수여 및 연근해에서의 어로활동을 보장하는 등 왜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었다.<sup>66)</sup>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조선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성종대에 이르자 왜인들에 대한 조선의 규제와 통제가 강화하기 시작하였다.<sup>67)</sup> 대마도 왜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일어난 왜인의 항거는 결과적으로 삼포왜란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삼포왜란 때 왜인 병력의 규모는 4~5천이었는데 대마도주는 수백 척의 병선과 병력을 실어 더해주었다. 즉 삼포왜란은 규슈에서 영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대마도에서 병력을 양성하는 동안 유지되었던 제한적 평화에 대한 조선의 규제가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sup>68)</sup>

이후 왜구는 을묘왜변을 일으키면서 군현들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렸다. 을묘왜변은 달랑포와 달랑성을 포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왜구는 전체 병력을 노출시키지 않은 일부 병력만을 가지고 포위함으로써 조선의 지원을 소규모로 하는 기만작전과 함께 지원 병력까지 포위하여 섬멸하는 체계적인 작전을 세웠다.<sup>69)</sup> 달랑성의 함락으로 전라도 육군의 수장이었던 元續이 전사하고,<sup>70)</sup> 해당 지역의 방어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켜 인근의 군현들의 방어체계가 함께 무너지게 하였다. 이후 왜구는 분산

62) 김보한, 「무로마치 왜구와 조선의 대(對)왜인 정책」, 『일본연구』 18,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2, 278쪽.

63) 『世宗實錄』 卷5, 1年 10月 11日 壬午. “其必如宗俊等親來投化, 乃許其降, 大者爲官, 小者爲民, 聽其所願, 使安生業. 汝往曉諭島人, 其速來報. 待十一月不報, 吾亦以爲永不來投矣.”

64) 『世宗實錄』 卷122, 30年 12月 23日 乙亥. “賜投化倭護軍藤九郎米酒鹽醬魚肉.”

65) 김보한, 위의 글, 2012, 279쪽.

66) 『成宗實錄』 卷47, 5年 9月 23日 乙亥. “對馬島釣魚倭人等, 受島主三着圖書文引, 付知世浦萬戶, 受萬戶文引, 往孤草島釣魚, 還到知世浦, 納萬戶文引及魚稅然後, 萬戶於島主文引, 回批着印還付而送, 此前例也. 自今年正月以後, 知世浦所付文引及納稅, 回批, 釣魚人等船數, 人名, 詳悉錄啓, 如有付島主文引而不還受者, 其文引亦并上送.”

67) 『成宗實錄』 卷10, 2年 5月 25日 丁酉. “一. 倭, 野人歲朝定數. …一. 倭客人護送通事往還日限考察. …一. 倭人還歸時, 求請陸物, 鐵釘量給.”

68) 심민정, 「삼포왜란의 발생원인과 대마도」, 『동북아시아문화연구』 34,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79-82쪽.

69) 『明宗實錄』 卷18, 10年 5月 16日 己酉. “全羅道觀察使金澍馳啓曰: “五月十一日, 倭船七十餘隻, 來泊達梁【浦名】外, 自梨津浦, 達梁浦, 分東西下陸, 焚蕩城底閭閻, 遂圍其城” 云. 初倭船十一隻, 見於海島中, 終於下陸, 或吹角縱火, 或揮槍拔劍, 加里浦僉使李世麟即馳報於兵使元續, 續與長興府使韓蘊, 靈巖郡守李德堅, 將往救之, 馳赴達梁, 因爲所圍”.

70) 『明宗實錄』 卷19, 10年 8月 19日 辛巳. “達梁之城, 尤不堅固. 元續聞變馳入, … 見元續在城而死, 故皆棄城而逃也”.

되어 영암 이남의 각 지역을 약탈하였고, 조선은 그 피해가 더욱 북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영암성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영암성의 전투가 승리로 이어지게 되자<sup>71)</sup> 왜구는 강진에서 배를 타고 후퇴하면서 충분히 약탈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여 철수하였다.<sup>72)</sup>

영암성 전투에서 패퇴한 왜구가 물러나긴 하였으나, 을묘왜변에 주체가 되었던 왜구는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중국인이 섞이면서 종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우선 약탈지를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전환하고 국제적 혼성왜구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sup>73)</sup> 이들은 중국의 舟山列島를 중심으로 밀무역을 행하던 집단으로 명나라의 반격으로 인해 일본 큐슈 서쪽지방으로 세력권을 옮기고 있었다.<sup>74)</sup> 즉 조선은 대마도에 대해서 교류와 압박을 통해 왜구를 없애고자 하였으나 이 시기에 오면 대마도에 통제할 수 없는 범국가적 집단과 동시에 독자적인 세력권을 가진 왜구가 등장한 것이다.<sup>75)</sup>

이들 왜구는 遠海에 대한 항해의 어려움을 조선 남해안의 섬들을 중간거점과 이정표로 삼아 중국 침략에 대한 항해루트를 설정하였다. 특히 기존 큐슈 출신의 왜구가 아닌 중국에서 활동하던 국제적 왜구들이었던 만큼 활동범위가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또한 명의 토벌로 근거지를 잃고 큐슈를 새 근거지로 활동했으나, 일본정부와 대마도가 조선에 우호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큐슈를 근거지로 활동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근거지를 찾기 위한 침략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 을묘왜변이었다고 생각한다.

왜구는 영암성의 패배로 철수하면서 1천여 명의 규모로 제주를 재차 침공하였다.<sup>76)</sup> 왜구는 제주 침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전라도-제주도-북큐슈를 잇는 해상권을 장악하고 제주를 중간기착지로 삼고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77)</sup> 이 당시 왜구는 舟山列島를 근거지로 하여 약탈행위를 하면서 중간기착지의 중요성을 인지하

71) 『明宗實錄』卷19, 10年 8月 15日 丁丑. “二十六日, 兩將始聞靈巖戰勝, 賊徒敗走, 追至康津後嶺, 賊已登船, 未及尾擊云”.

72) 문준호, 「조선 명종대 을묘왜변에 관한 군과 정부의 대응」, 『군사』 10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7, 214-220쪽.

73) 윤성익, 「후기왜구로서의 을묘왜변」,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153쪽.

74) 윤성익, 위의 글, 2006, 159쪽.

75) 문준호, 앞의 글 2017, 209-210쪽.

76) 『明宗實錄』卷19, 10年 7月 6日 戊戌. “濟州牧使金秀文狀啓: 六月二十七日, 倭賊無慮千餘人, 下陸結陣. 臣抄率驍勇軍七十人, 突入陣前, 相距三十步. 倭人中箭者甚多, 而尙未退兵, 定虜衛金直孫、甲士金成祖·李希俊、保人文時鳳四人, 馳馬突擊, 賊軍潰散. 有一倭將, 着紅毛頭具, 【盔也.】自恃其能射, 獨不退北, 正兵金夢根射中其背, 卽顛仆. 我軍乘勝追擊, 斬獲甚衆”.

77) 제주도, 『濟州道誌』, 2006, 387쪽.

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대상지로 제주를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의 지리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삼포왜란과 을묘왜변을 거치면서 논의되었다.

③ 巨濟·南海·珍島·濟州같은 곳은 수로가 험하고 멀어서 번고가 있더라도 미처 구원할 수가 없으니, 먼저 조치를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불행히 왜노가 이 땅에 몰래 응거한다면 곧 적의 소굴이 되어서, 국가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sup>78)</sup>

④ 다른 곳은 다 거론할 수 없거니와 濟州가 특별히 염려됩니다. 이곳은 서남쪽으로 바다를 정면하고 있고 또 중국과 서로 가깝습니다. 왜적이 만약 이곳을 점거하게 되면 비록 천하의 힘으로 탈취하려 하여도 탈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일에 賊使 要時羅가 장차 제주를 침범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였는데 본주에는 마침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사망하니 또한 불행할 것 같습니다. 기타의 모든 일은 비변사와 함께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sup>79)</sup>

⑤ 祕密 비망기로 전교하였다. "지난 번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은 사람의 말을 듣건대 '대마도의 왜적이 장차 濟州를 도모하려고 한다.' 하였다.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도모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 없는 것이요, 그 말이 맞지 않으면 나라의 복인 것이다. 만일 제주에 적변이 있게 되면 그 형세가 지탱하기 어렵다. 혹시 불행하게도 적이 耽羅를 점거하여 소굴로 삼는다면 다른 날 말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된다. 제주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긴 하지만 천하의 안위가 여기에 달려 있다. 전일 내가 舊例에 따라 군사를 더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사세가 어렵다고 하였었다. 이제 허실간에 聲息이 그러하고 심지어 추자도 근처에 적선이 다시 출몰한다니, 헤아리기 어려운 정세가 있을까 염려된다. 本州의 방비 상황 역시 어떤지 알 수가 없어 나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제주에 대해 특별히 조치할 일을 비변사에 일러서 의논해 조치하게 하라.<sup>80)</sup>

78) 『中宗實錄』 卷11, 5年 4月 19日 甲辰. “巨濟, 南海, 珍島, 濟州, 則水路阻遠, 雖有變故, 不及救援, 宜先措置. 不幸倭奴, 竊據此地, 則便爲賊穴, 非國家有也”.

79) 『宣祖實錄』 卷71, 29年 1月 3日 庚午. “他處不可概舉, 濟州尤甚可憂. 此地正當西南海, 且與中國相近, 倭若據之, 則雖欲以天下之力, 取之不可(能). 前日賊使要時羅, 明言將犯濟州, 而本州適癘疫, 飢饉, 人民死亡, 亦似不幸. 其他事, 並與備邊司, 不分晝夜措置宜當”.

80) 『宣祖實錄』 卷137, 34年 5月 11日 戊申. “以祕密備忘記, 傳曰: “頃見被擄逃還人之言, 對馬島 倭賊, 將謀濟州云云. 其言雖不足信, 在我先事而圖, 未爲不可, 言之不驗, 國之福也. 萬一濟州有賊變, 其勢難支. 脫有不幸, 賊據耽羅, 作爲巢穴, 則他日有不忍言之事矣. 濟州雖曰海中一島嶼, 足以繫天下之安危. 前日子欲依舊例, 添兵入送, 則以爲事勢, 有所難矣云云. 今虛實間, 聲息如彼, 至於楸子島近處, 賊船再爲出沒, 恐有叵測之情. 本州防備形止, 亦未知如何? 予過有隱憂. 濟州另加措置事, 言于備邊司議處”.



⑥ 제주읍은 지형상으로 우리나라의 형세뿐만 아니라 실로 천하의 형세에 관계되는 중요한 곳이다. 만에 하나 지키지 못하여 적의 소굴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병력으로 는 다시 수복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제주를 방어하지 못하게 될 때 는 실로 우리나라가 망하는 때인 것이다. 다른 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 짐짓 치지도 못하고 있으니, 내가 매우 걱정스럽다.<sup>81)</sup>

사료 ③~⑥의 내용과 같이 종종 대부터 제주와 남해안에 대해서 왜구가 근거지로 삼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선조 대에서는 왜구가 직접적으로 제주를 목표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제주에 대해서도 왜구가 점거하게 되면 다시 탈환하기 힘든 지역이며, 천하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제주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시대에도 제주도에 대한 중요성을 거론한 바가 있었는데 1260년(원종 원년)에 제주는 바다 밖의 큰 진이며 송나라 상인과 왜인이 수시로 왕래하는 지역으로 비상시를 대비하여 제주의 수령에게 방호별감을 겸직하게 하여 방어에 필요한 권한을 주었다.<sup>82)</sup> 이른 시기부터 송나라 상인과 왜인들이 제주를 왕래한다는 것은 이때부터 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바닷길이 조성되었고 인식도 강화되었다. 탐라가 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지역방비를 엄하게 하여야 한다<sup>83)</sup>는 것과 공민왕 때 발생한 목호의 난에 대한 명의 당부는 탐라를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탐라의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sup>84)</sup> 특히 제주를 논의할 때는 항상 왜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의 경우 수많은 왜구 침입 사례가 확인되지만 제주의 침입 사례는 『高麗史』에서는 200척의 규모로 침입한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sup>85)</sup> 전체 침입 중 4번째

81) 『宣祖實錄』 卷158, 36年 1月 14日 辛未. “上曰: “濟州之爲邑, 非特我國之形勢, 實乃天下之形勢. 萬一失守, 爲賊窟穴, 則以我國之兵力, 恢拓極難. 濟州失禦之日, 實是亡國之秋也, 而不遑他事, 姑置度外, 予甚憂之”.

82) 『高麗史』 卷135, 世家, 元宗 元年 2月 2日 庚子. “以濟州副使判禮賓省事羅得璜, 兼防護使. 朝議濟州, 海外巨鎮, 宋商島倭, 無時往來, 宜特遣防護別監, 以備非常. 然舊制, 但守倅而已, 不可別置防護, 遂以得璜, 兼之. 且故事, 京官秩高者, 補外職, 秩不相當, 則皆以本職, 帶前字赴官. 今若以前銜鎮之, 亦無威重, 故令銜頭, 除前字, 仍帶判事, 其通牒按察使, 稱防護使”.

83) 『高麗史』 卷32, 世家, 忠烈王 27年 5月 12日 庚戌. “地如隣敵, 爲備要詳, 天必聽卑, 所須當聞. 庶仗早圖之力, 欲消後悔之萌, 伏念, 叢爾耽羅, 接于倭國, 恐姦人災來忽往, 或漏事情, 令戍卒嚴警肅裝, 不容窺覘. 於是”.

84) 『高麗史』 卷43, 世家, 恭愍王 21年 9月 18日 壬戌. “我聽得恁那地面裏倭賊縱橫, 劫掠濱海, 人民避怕逃竄, 不能鎮遏. 致使本賊過海前來作耗的上頭, 我這裏戒飭沿海守禦官, 見獲到前賊船一十三隻有. 若耽羅牧子每, 與此等賊徒, 相合一處呵, 勦捕的較難有”.

85) 『高麗史』 卷133, 列傳, 禍王, 3年 6月 未詳. “倭賊二百餘艘寇濟州, 全羅道水軍都萬戶鄭龍·尹仁祐等, 率兵候之, 獲一船殲之. 禍與龍等衣一襲”.

규모에 해당하지만,<sup>86)</sup> 『耽羅紀年』에는 또 다른 기록이 확인된다.

<표 1> 『耽羅紀年』의 왜구 침입 사례

연번	년도	내 용
1	1341년(충혜왕 복위 2)	왜적이 남쪽 변방을 침입했다. 다음해는 700여 척으로 침입하였다.(1342)
2	1351년(충정왕 3)	왜적이 귀일촌에 침입하였다.
3	1352년(공민왕 원년)	왜적이 우포에 침입하였다.
4	1359년(공민왕 8)	왜적이 대촌에 침입하였다.
5	1376년(우왕 2)	이 해에 왜적 6백여 척이 주변을 돌다가 침입하자...
6	1377년(우왕 3)	왜적 2백여 척이 침입하였다.

『耽羅紀年』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고려를 약탈한 311회의 왜구 침입과 비교한다면 제주의 6회 침입은 전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횟수이다. 그렇다면 앞선 원종 원년의 기사에서 제주방어의 필요성이 높은 요충지로 판단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을 수령에게 부여하여 제주를 방어하고자 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주가 경제적으로 풍부한 물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침입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종의 조치는 제주에서 공급했던 戰馬의 중요성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나라의 목장 설치 이전에도 제주에서는 牛馬들에 대한 자유 방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sup>87)</sup> 숲한 농경지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을 만큼 제주의 초원지대에서는 수많은 우마들이 생산되고 있었다. 이후 원의 황실목장 설치, 명의 공마요구 등으로 보아 왜구는 전투에 필요한 전마의 확보를 위한 약탈지로 제주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병을 운영하고 있던 왜구에게 제주의 목장은 군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었을 것이며, 왜구의 침입 요인 중 하나로 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조선 태종대에도 원이 주목했던 제주의 지리적 가치를 인식하고 명의 불상 반환을 빌미로 제주를 정탐하려는 의도를 파악한 기사도 확인된다.

- ⑦ 황엄 등이 친히 濟州에 가서 銅佛像을 맞이하려 하니, 흑자가 말하기를, “황제가 황엄 등으로 하여금 耽羅의 형세를 보게 함은 다른 뜻이 있어서이다.” 하니, 임금이

86) 이영, 앞의 글,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한국중세사학회, 2004, 121쪽, 침입 규모의 순위는 500척-350척-230척-200여 척-150척-130척-120척-100척으로 이루어져있다.

87) 김동전·강만익,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36쪽.

걱정하여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고, 급히 宣差 金道生과 司直 朴模를 보내어 제주에 급히 가서, 法華寺의 銅佛像을 가져 오게 하였으니, 대개 만약 불상이 먼저 羅州에 이르면, 황엄 등이 제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sup>88)</sup>

명의 제주 불상을 빌미로 정탐하려는 의도를 파악한 태종이 인식했던 제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국가적 기밀로 판단하고 있음이다. 이것은 고려 때부터 제주가 일본-조선 남해안-중국으로 연결되는 바닷길의 중간수역에 위치하여 각국의 정보와 방어에서 중요한 전략을 추가할 수 있는 요충지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주와 남해안 사이의 바다는 중국으로 향하는 항로로서의 중요성이 있지만, 1417년(태종 17)에 왜적이 추자도에 숨어서 여러 섬을 엿보고 왕래하는 배를 습격하는 은신처로 삼았던 일은<sup>89)</sup> 왜구들이 추자도를 기점으로 남해안 일대의 방어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목표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아래의 그림은 대마도와 제주 사이의 주요 섬<sup>90)</sup>과 태종대 남해안 지역에 왜구 침입지역<sup>91)</sup>을 함께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1> 남해안 주요 섬과 왜구 침입지(파란 점 : 주요 섬, 빨간 점 : 왜구침입지)

88) 『太宗實錄』 卷12, 6年 7月 16日 癸卯.

89) 『太宗實錄』 卷34, 17年 7月 8日 辛酉. “濟州各司奴婢及軍丁等, 因興利船逃亡出陸. 自今京中人則漢城府外方人則所居官, 許令行狀成給, 違者論罪. 濟州人無本州行狀者亦論罪, 皆令還本. 且倭賊隱泊楸子島, 窺覘諸島, 或害往來之船, 公私船依兵船例, 嚴備軍器衣甲, 卒遇倭賊, 對敵避害.” 從之.”

90) 정영현, 「여말선초의 제주와 왜구」, 『한국민족문화』 7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248쪽.

91) 최근락, 앞의 글, 2009, 지도 3-2.

그림에서 확인되는 왜구의 침입지는 주요 섬과 연결된 연해지역과 강으로 연결되어있는 지역이다. 이것은 왜구가 주요 섬들을 은신처 내지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면서 약탈행위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반면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섬이면서도 중간 기항지의 여러 장점이 있음을 파악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적으로는 왜구가 제주를 점령하면 남해안 일대를 순회하며 약탈할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삼별초가 입거했었던 해발 140m~200m 지점의 향파두리에서는 북쪽 바다로 건너오는 배들을 관측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제주 방어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제기된 바 있었다.<sup>92)</sup> 이것은 왜구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전략으로 남해안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전략요충지 기능이 부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왜구의 제주 침입은 경제적인 면보다도 지리적 중요성에 따른 전략적 효용성에서 우위를 지니는 사례들이 고려시대부터 확인된다. 제주가 실질적으로 왜구에게는 점령된 적은 없으나 삼별초를 예로 본다면 적이 제주를 점령하게 되면 남해안 일대와 경기지역까지 그 피해가 번질 수 있었다. 또한 목호의 난의 경우에도 제주의 목호 세력이 왜구와 연합했을 때 수습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제주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방어진설 구축과 군사력에 대한 권한이 일찍 주어졌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조선 전기 전략 요충지로 판단한 제주의 방어진설은 무엇이며 운용상황은 어떠했는가를 확인해 보겠다.

---

92) 전영준,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208-210쪽.

### Ⅲ. 조선 전기 제주의 관방시설 설치와 운용

#### 1. 조선 전기 제주 해안방어 전력의 강화

조선 정부는 고려 때부터 지리상의 요충 역할을 하였던 제주의 해안 방어에 주목하여 戰船建造와 읍성 및 수전소의 설치, 봉수와 연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건국 초부터 제주의 방어 전략은 전선의 건조와 배치에서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⑧ 濟州가 바다를 隔해 있어 민호의 貢賦를 지금까지 정하지 못하였으니, 大戶·中戶·小戶를 分간하여 그 토산인 馬匹로 하되, 대호는 大馬 한 필, 중호는 中馬 한 필, 소호는 5戶가 아울러 中馬 한 필을 내게 하여, 암수[雌雄]를 물론하고 탈 만한 마필을 가려서 貢賦하게 하고, 기축년 봄부터 모두 육지에 내보내게 하소서. 또 제주는 兵船이 없기 때문에 왜적이 계속 침입하고, 大小使臣과 新舊守令의 往還으로부터 公私漕轉의 출입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라도의 얼마 안되는 병선으로 내왕 호송하니, 그 폐단이 또한 심합니다. 비읍건대, 전라도의 兵船匠을 보내어 병선 10척을 제조하고, 船上에 적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태워서 정박시켜, 왜적을 追捕하고 왕래하는 선박을 호송하게 하여 항식을 삼으소서.<sup>93)</sup>

⑨ 제주 목사 李鳴謙이 아뢰기를, "제주는 멀리 바다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 사면으로 적을 맞이하게 되니, 방어가 제일 긴급합니다. 적을 제어하는 전술로는 水戰 같은 것이 없는데, 이전에는 겨우 고기잡이배나 貢船이 있었을 뿐이고 다른 전함은 없었으므로, 만약 적의 침입을 맞게 되면 제어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빌건대, 지금부터 濟州牧官에 30척, 旌義縣·大靜縣에 각각 10척을 要害地에 나누어 정박시켜서 방비를 엄하게 하소서." 하니, 兵曹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sup>94)</sup>

93) 『太宗實錄』 卷16, 8年 9月 12日 丁巳. “濟州隔海, 民戶貢賦, 至今未定. 乞大中小戶分揀, 以其土產馬匹, 大戶大馬一匹, 中戶中馬一匹, 小戶五并中馬一匹. 勿論雌雄, 擇其可騎馬匹爲賦, 自己丑年春節, 並令出陸. 又濟州因無兵船, 倭賊續續入侵, 大小使臣, 新舊守令往還, 以至公私漕轉出入, 皆以全羅道數少兵船, 來往護送, 其弊亦劇. 乞送全羅道兵船匠, 造兵船十隻, 擇船上可當人, 充騎泊立, 使之追捕倭賊, 護送往來船隻, 以爲恒式”.

94) 『文宗實錄』 卷9, 1年 9月 28日 癸亥. “濟州牧使李鳴謙啓: “濟州邈在海中, 四面受敵, 防禦最緊. 制敵之術, 莫如水戰, 前此僅有捕魚貢船而已, 無他戰艦, 如遇賊變, 制禦無由. 乞自今, 牧官三十艘, 旌義, 大

⑩ 지금의 제주는 바로 옛적의 탐라로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은 빈한하며 주거지는 흩어져 있습니다. 세 곳의 조그마한 城은 그 모양이 둥근 활 같은데 장정 하나가 공격하여도 울타리를 철거하기보다 쉽습니다. 평상시 군졸이라 불리는 사람도 수백을 넘지 못하며 더구나 그 가운데 활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열에 두셋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밖으로는 믿을 만한 세력이 없으며 안으로는 방어할 만한 군대가 없습니다. 牛島 동편은 육지가 높으로 이루어져 있고 大靜 서쪽은 漢水 물가처럼 평평합니다. 그래서 왜적들이 侵寇해 올 경우 1천여 척의 배를 정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구가 침구해 오지 않은 까닭은 저들이 멀리서 지리의 險夷, 군사의 허실을 측량하기 어려워서였던 것입니다.<sup>95)</sup>

태종~문종대의 제주 방어의 보완책으로 부족한 戰船의 확충을 시급히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왜구의 침입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사료 ⑧~⑩에서 확인된다. 태종대의 기사에서는 전함 건조 기술자의 파견으로 10척의 造船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兵船匠의 파견만으로도 병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은 고려 때 원나라가 東征의 목적으로 제주에서 전함 건조와 관련한 명령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96)</sup> 또, 문종대에는 제주목사 이명겸의 보고에서와 같이 제주목과 2현에 50척의 전선을 마련하는 대책도 적극 추진되었다.

기본적으로 제주의 방어는 海島入保 체계에 山城入保를 더하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사료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주가 섬이라는 특징으로 해도입보의 전략을 구사하면서도 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항전 방식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읍의 성곽 자체가 완비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성곽이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방어에 필요한 병력 또한 전무하여 지금이라도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적이 제주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파악하여 이들의 침구가 있기 전에 긴박한 방어 전략을 주문하였다.

靜各十艘，分泊要害之處，以嚴備禦。”下兵曹議之”。

95) 『中宗實錄』卷94, 36年 1月 3日 庚寅. “今茲濟州，即古耽羅，地瘠民貧，邑居散逸，叢爾三城，如弓之圓，一夫攻之，易於撤籬。常時號爲軍卒者，不過數百，而其中操弓者，十無二三，外無可恃之勢，中無可禦之兵。牛島之東，陸地成渚，大靜以西，平如漢濱，倭賊之來，可泊千艘。如此而寇常不至者，以地之險夷，兵之虛實，彼難遙度也”。

96) 『高麗史』卷26, 世家, 元宗 9年 10月 13日 庚寅. “卿遣崔東秀，來奏，‘備兵一萬，造船一千隻事’。今特遣脫朶兒等就彼，整閱軍數，點視舟艦。其所造船隻，聽去官指畫。如耽羅已與造船之役，不必煩重，如其不與，即令別造百艘。”

관방시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상태의 제주 방어체계에 변화가 보이는 것은 1404년(태종 4)이었다. 제주의 동쪽과 서쪽의 千戶所를 각각 동도와 서도 靜海鎮으로 개편하면서 방어 체계의 변화가<sup>97)</sup> 나타났고, 이후 제주읍성의 수축을 통해 방어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sup>98)</sup> 1416년(태종 16)에는 북쪽의 大村縣에 성을 쌓아 본읍으로 삼았고, 동쪽은 정의현을 본읍으로 서쪽은 대정현을 본읍으로 삼아 3성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sup>99)</sup> 정의현은 본래 성산읍 고성에 初築되었으나 성안에 식수가 없고 왜구의 침략에 취약한 지형이어서 移築이 불가피하였다.<sup>100)</sup> 이러한 체제에서 제주의 관방시설은 1439년(세종 21)에 한승순의 제주 방어방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01)</sup> 기사에서 확인되는 군 주둔지인 방호소는 다음과 같다.

<표 2> 한승순 啓에서 확인되는 도내 병력 주둔지

읍치	주둔지	병력 규모
본주[濟州]	城內守禦所	마·보병 1,329명
	金寧	마·보병 153명
	朝天館	마·보병 103명
	都近川	마·보병 144명
	涯月	마·보병 144명
	明月	마·보병 192명
정의현	守城三所	마·보병 483명
	西歸所	마·보병 124명
	水山所	마·보병 175명
대정현	守城三所	군인 407명
	東海所	마·보병 56명
	遮歸所	마·보병 75명

97) 『太宗實錄』 卷7, 4年 4月 21日 辛卯. “...以東道千戶所爲東道靜海鎮, 西道千戶所爲西道靜海鎮...”

98) 『太宗實錄』 卷21, 11年 1月 3日 甲子. “命修築濟州城.”

99) 『太宗實錄』 卷31, 16年 5月 6日 丁酉.

100) 『世宗實錄』 卷18, 4年 11月 9日 壬戌. “旌義縣人前副正崔興雨等一百三十八人告: ‘縣城內無泉, 且大山臨壓, 矢石所及, 請移於晋舍里.’”, 『世宗實錄』 卷18, 4年 12月 23日 乙巳. “移築旌義城於晋舍里.” 실록의 기록에는 1422년에 정의현성을 移築하였다고 하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癸卯(1423년)에 移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01) 『世宗實錄』 卷84, 21年 閏2月 4日 壬午. “道內軍人屯戍之處, 則本州東則金寧、朝天館, 西則都近川、涯月、明月、大靜縣, 西則遮歸, 東則東海、旌義懸, 西則西歸, 東則水山等處, 並是倭寇泊船要害之處, 前此皆置防禦所. 金寧所軍人馬步兵並一百五十三名, 朝天館所軍人馬步兵并一百三名, 州邑城內守禦所左右所囊所並馬步兵一千三百二十九名, 都近川所軍人馬步兵並一百四十四名, 涯月所軍人馬步兵并一百四十四名, 明月所軍人馬步兵並一百九十二名, 遮歸所軍人馬步兵并七十五名, 大靜縣守城三所軍人馬步兵并四百七名, 東海所軍人馬步兵并五十六名, 西歸所軍人馬步兵并一百二十四名, 旌義縣守城三所軍人馬步兵并四百八十三名, 水山所軍人馬步兵并一百七十五名, 並分番防戍. 右防護所外, 倭船依泊可畏處, 自金寧至朝天館相距十八餘里內三處, 自朝天館至州邑城相距三十餘里內七處, 自東海至西歸二十餘里內三處, 自西歸至旌義相距六十餘里內三處, 自水山至金寧相距四十餘里內五處. 公私奴隸及各所屬正軍奉足等雜色軍人, 隨其多少, 每一處或五六十名或一百餘名分定, 更番守禦爲.”

제주를 중심으로 군 주둔지는 김녕·조천관·도근천·애월·명월에 두었으며, 동쪽에는 정의현과 서귀소·수산소에, 서쪽은 대정현과 동해소·차귀소에 병력을 주둔시켰다. 총 3,385명의 군사를 각 읍치의 방호소에 배치하면서도 馬兵의 편성도 함께 보인다는 것은 이후의 왜구 방어전술 상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이는 계기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방호소 외에 왜구가 배를 대고 정박이 가능한 곳을 파악하였는데, 제주 지역에서는 10처, 정의현에 6처, 대정에는 5처가 추가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 방호소가 없어서 50명 혹은 최대 100명 씩番禺을 갈라서 방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해안 방어의 전략으로는 상륙한 적을 육군이 막는 사이 수군으로 협공하여 적을 쫓는 방식으로, 5~6척의 배로 1隊를 편성하고 있으며 방호소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sup>102)</sup> 이러한 전선 배치와 관련한 기록은 한승순의 啓나 『世宗實錄地理志』에는 보이지 않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전선 배치 기록이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sup>103)</sup>에 따르면 제주목에 7처, 정의현에 2처, 대정현에 3처로 총 12처의 수전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모두 戰船이 있고, 군사들이 번갈아서 나누어 지킨다.’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전소는 다음과 같다.

제주목 水戰所	건입포	정의현 水戰所	서귀포	대정현 水戰所	모슬포
	조천관포				오소포
	김녕포구		범질포		
	별랑포구				
	도근천포구				
	애월포구				
명월포구					

이들 수전소에는 1408년(태종 8)에 兵船匠 즉 배 만드는 장인을 보내 건조한 병선 10척<sup>104)</sup>과 1451년(문종 1)에 제주목에 30척, 대정·정의에 각 10척씩 총 50척의 배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였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60척 이상의 전선이 수전소에 배치되었

102) 『世宗實錄』 卷93, 23年 7月 18日 壬子. “濟州各浦公私船, 雖屬防護所, 未有體統. 乞自今悉皆刷出, 分三軍, 各於掌內泊立, 如有倭賊, 左右(挾攻)(挾攻), 乘機應變, 似爲便益.”

103)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關防條, “巾入浦水戰所 在州東北一里, 朝天館浦口水戰所. 金寧浦口水戰所 已上三所屬左舫. 伐郎浦水戰所 在州西二十步. 都近川浦口水戰所. 涯月浦口水戰所. 明月浦口水戰所 已上四所屬右舫諸所皆有戰船又有軍更番分戍.”; 旌義縣 關防條, “吾召浦水戰所. 西歸浦水戰所.” 大靜縣 關防條, “毛瑟浦中水戰所. 塞浦東水戰所. 犯叱浦西水戰所.”

104) 『太宗實錄』 卷16, 8年 9月 12日 丁巳. “乞送全羅道兵船匠, 造兵船十隻, 擇船上可當人, 充騎泊立, 使之追捕倭賊, 護送往來船隻, 以爲恒式.”



다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條의 전선이 총 155척으로 서남해안의 전역에서 조운과 관방에 필요한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비추어보면, 제주의 전선 60척은 상당한 軍備 증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1510년(중종 5)에는 제주의 전선이 123척<sup>105)</sup>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었는데, 제주 해안 방어에 필요한 정부의 지속적인 전력 보강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수군 전력의 보강은 결국 보병과 마병을 포함하는 협동 전술로 왜구의 침입에 대한 방어 전략의 구축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제주의 9개 방호소 이외에도 정의현의 오소포방호소와 대정현의 색포방호소와 모슬포방호소가 확인된다.<sup>106)</sup> 이 3개의 방호소는 1439년(세종 21)에서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481년 사이에 추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방호소는 이후 정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水山과 遮歸방호소는 1439년(세종 21)에 성곽 없이 지어졌으나 이를 보완하는 축성이 있었다.<sup>107)</sup> 다만 이 기록에서는 차귀방호소가 아닌 西歸방호소로 나오고 있는데 이후 1443년에 西歸에 성을 쌓는 기록<sup>108)</sup>과 1510년 張琳의 계에 따르면 水山과 遮歸에 이미 옛 성이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西歸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록을 통해 1443년(세종 25)에는 앞서 말한 서귀와 김녕, 명월에 우도와 죽도에 敵船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서 성을 쌓아 방어하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의 사정이 좋지 않아 축성을 미루었다.<sup>109)</sup> 이후 張琳의 방어 시설 개편에서는 水山과 遮歸 두 곳의 옛 성만 수축되었고, 나머지 7개소의 포구는 본래 城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성을 수축하여 방어에 대비하였다.<sup>110)</sup>

張琳이 제주 목사로 있는 동안 제주의 관방 시설은 일대 변화를 보였다. 성곽의 축조와 함께 방호소의 위치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이 때 김녕방호소를 별방으로 옮겼는데 牛島에 왜구들이 정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sup>111)</sup> 또한 1439년 ~

105) 『中宗實錄』 卷12, 5年 9月 16日 己巳. “...三邑戰艦, 摠一百二十三隻...”

106) 『新增東國輿地勝覽』, 旌義縣 關防條, “吾召浦防護所 在縣東四十三里.”; 大靜縣 關防條, “塞浦防護所 在縣東五十八里. 毛瑟浦防護所 在縣南十里.”

107) 『世宗實錄』 卷84, 21年 閏2月 4日 壬午. “詢諸古老, 皆云: ‘旌義縣東牛峰、大靜縣西竹島, 自古倭船隱泊, 最爲要害之地.’ 右牛島隣近水山、竹島隣近西歸防護所, 竝無城郭, 儻倭賊犯夜突入, 則軍士無所依據, 應敵勢難. 請量宜築城, 以應敵變.”

108) 『世宗實錄』 卷99, 25年 1月 10日 丙寅. “又本州東金寧防護所, 東有牛島, 距陸地三十餘里. 又其西明月防護所則西有竹島, 距陸地二十餘里, 竝皆賊船入寇之處. 旌義, 大靜兩縣之間西歸防護所則兩縣遙隔, 賊船入泊, 亦爲可畏. 請於此三處, 築城守禦.”

109) 『世宗實錄』 卷100, 25年 5月 28日 壬午. “濟州按撫使馳啓: “請於三更防護所築城.” 下兵曹議之. 兵曹報議政府曰: “隨後視年豐歎築之.” 政府啓: “濟州四面險阻, 賊船難泊, 而土瘠民貧, 築城甚難. 請仍舊要害之處, 嚴加防禦.”

110) 『中宗實錄』 卷12, 5年 9月 16日 己巳. “水山, 遮歸二浦, 則仍舊城修築, 設坑坎末木. 其餘七浦, 則本無城子, 守保無依, 至爲虛疎. 故依兩界例, 時方築城, 各其附近居民, 移接後出入農作.”

111)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關防. “別防城, 在州東七十五里, 石築周二千三百九十尺 高七尺. 東北有門. 正德庚午以 地爲牛島倭船泊近處築城移金寧防護所于此號爲別防.”

1481년 사이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加内の 방호소를 동해방호소에 속하게 하여 지역의 방어력 집중을 위한 통합 조치였다.<sup>112)</sup>

<표 4> 제주 지역별 방호소 및 수전소

관할읍성	방호소명	축조시기	관할 수전소	비고
濟州	金寧	1439년 이전	김녕포수전소	1510년 별방으로 이전
	朝天館	1439년 이전	조천관포수전소	
	都近川	1439년 이전	도근포수전소	
	涯月	고려시기	애월포구수전소	
	明月	1439년 이전	명월포구수전소	
	別防	1510년		
	城內守禦所		건입포수전소	추정
旌義	西歸所	1439년 이전	서귀포수전소	
	水山所	1439년 이전		
	吾召浦	1439-1481년	오소포수전소	
大靜	東海所	1439년 이전		
	遮歸所	1439년 이전	범질포수전소	
	塞浦	1439-1481년	색포동수전소	
	毛瑟浦	1439-1481년	모슬포중수전소	
	加內	1439-1481년		1510년 동해소로 편입



그림 2> 조선전기 제주 3성 및 방호소

앞의 <표>를 중심으로 종합하면 조선 전기 제주에 설치된 관방시설은 제주·정의·

112) 『新增東國輿地勝覽』, 大靜縣, 關防. “東海防護所, 在縣東五十七里. 新增 : 在縣東四十五里, 石築周五百尺 高八尺成中有泉. 正德庚午移加內關防于此.”

대정의 3개성을 중심으로 13개의 방호소와 12개의 수전소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성곽의 추가 축조와 주요 요해처로 방호소를 이동하여 체계적인 관방시설을 계획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세종 때부터 설치되었던 방호소와 『東國輿地勝覽』 및 1510년의 張琳의 방호소 개편은 각각의 방호소와 수전소는 당시 정부가 판단한 요해처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해안가를 빙 둘러서 왜구가 상륙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 체계는 적의 기습공격에 지역이 고립될 수 있는 약점이 있었다. 그래서 해안의 방어 시설 간의 연계와 보완을 위한 감시체제로 봉수체제를 구상하게 이르렀다(<그림 2> 참조).

1302년(충렬왕 28)을 기하여 戌체제가 봉수체제로 변화하면서 제주에 봉수대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조선시대 기록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봉수 기록은 한승순의 啓에서 확인된다.<sup>113)</sup> 그러나 여기에서는 범위와 설치된 숫자만을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위치비정은 어렵지만, 봉수 설치의 자세한 양상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살필 수 있다.

<표 5> 『세종실록지리지』의 제주 봉수

관할읍성	봉수명	조용관계
濟州	東門	동쪽으로 別刀에 응한다.
	別刀	동쪽으로 元堂에 응한다.
	元堂	동쪽으로 西山에 응한다.
	西山	동쪽으로 笠山에 응하고, 또 동쪽으로 정의현 只末山에 응한다.
	南門	서쪽으로 道道里山에 응한다.
	道道里山	서쪽으로 水山에 응한다.
	水山	서쪽으로 高內에 응한다.
	高內	서쪽으로 郭山에 응한다.
	郭山	서쪽으로 板浦山에 응하고, 또 서쪽으로 대정현 遮歸山에 응한다.
	板浦	
旌義	達山	동쪽으로 岳沙只에 응한다.
	岳沙只	동쪽으로 水山에 응한다.
	水山	동쪽으로 只末山에 응하고, 또 제주 笠山에 응한다.
	兔山	서쪽으로 狐兒村에 응한다.
	狐兒村	서쪽으로 三每陽에 응하고, 또 대정의 居玉岳에 응한다.
	三每陽	
	只末山	
大靜	仇山	동쪽으로 居玉岳에 응한다.
	居玉岳	동쪽으로 정의의 三每陽에 응한다.
	貯里別伊	서쪽으로 毛瑟浦岳에 응한다.
	毛瑟浦岳	서쪽으로 遮歸岳에 응한다.
	遮歸岳	서쪽으로 제주 板浦岳에 응한다.

113) 『世宗實錄』 卷84, 21年 閏2月 4日 壬午. “濟州都安撫使韓承舜啓曰 … 烽火候望, 則自州東金寧至州

제주목에 9처<sup>114)</sup>, 대정에 4처<sup>115)</sup>, 정의에 5처<sup>116)</sup>로 총 18처의 봉수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주목 11처, 대정 5처, 정의 7처의 봉수명이 등장하므로 총 23처의 봉수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기록에서 입산·판포·지밀산·삼매양의 경우는 응하는 봉수로만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 간봉으로 양측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로 보인다. 또한 대정의 차귀악 봉수도 서쪽 끝에 위치하여 앞선 봉수와 같이 간봉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그림 3>은 지리지에 등장하는 봉수와 응했다는 방향을 표시한 것이다.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에 가장 가까이 인접한 봉수가 취합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동-서 양 끝에 위치한 지밀산봉수와 차귀악봉수의 경우는 신호체계의 목적지가 두 갈래로 나타난다. 지밀산봉수의 경우는 제주목과 정의현으로 이어지며, 차귀악봉수의 경우는 제주목과 대정현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세종실록지리지』 근거 제주봉수 노선도

西板浦十處，自大靜縣西遮歸至東居玉五處，自旌義縣西至北只末山七處。每一烽火，分定五人，又築烟臺高廣各十尺。”

114) 『세종실록지리지』 卷151. 全羅道 濟州牧條, “烽火九處, 州東門.【東準別刀.】別刀, 【東準元堂.】元堂, 【東準西山.】西山, 【東準笠山, 又東準旌義縣 只末山.】南門, 【西準道道里山.】道道里山, 【西準水山.】水山, 【西準高內.】高內, 【西準郭山.】郭山.【西準板浦山, 又西準大靜縣 遮歸山.】”

115) 『세종실록지리지』 卷151. 全羅道 濟州牧 大靜縣條, “烽火四處, 縣東仇山, 【東準居玉岳.】居玉岳, 【東準旌義 三每陽.】縣南貯里別伊, 【西準毛瑟浦岳.】毛瑟浦岳, 【西準遮歸岳.】遮歸岳. 【西準濟州 板浦岳.】”

116) 『세종실록지리지』 卷151. 全羅道 濟州牧 旌義縣條, “烽火五處, 縣城南達山, 【東準岳沙只.】岳沙只, 【東準水山.】水山, 【北準只末山, 又準濟州 笠山.】達山, 【西準兎山.】兎山, 【西準狐兒村.】狐兒村.【西準三每陽, 又準大靜 居玉岳.】”

제주의 경우 중심 鎭이 되는 제주·정의·대정의 성으로 그 정보 체계가 전달되어야 했다. 또한 중간 지역에 봉수를 설치하여 원형에 가까운 지형인 제주의 봉수체계는 실질적으로는 화살표와는 다르게 양방향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어 3개의 성이 각자 다른 성의 위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점이 제주 봉수체계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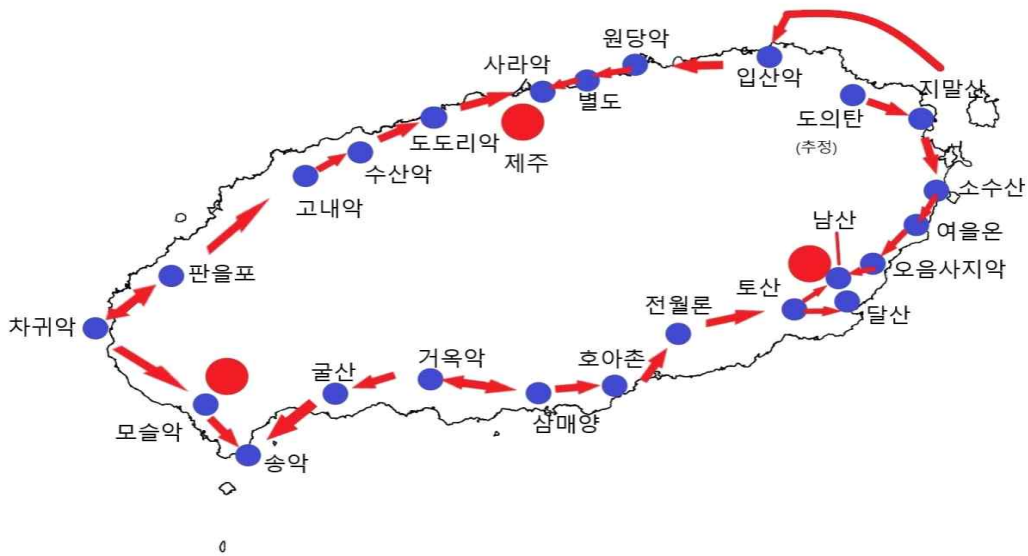
육지의 봉수체계에서 시작 지점은 변경에서 시작해서 한양으로 도달하는 것과는 다르게 제주의 봉수체계는 일견 응하는 방향만을 보면 제주성에만 신호가 도착하지 않는다. 지말산·차귀·판포·거옥악과 같이 양방향으로 응하는 봉수의 존재로 인해서 제주·정의·대정 3성이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봉수 노선도를 보면 서쪽의 차귀봉수가 판포봉수를 거치지 않고 더욱 먼 지역인 곽산봉수와 연결되었다는 비효율적인 노선도 확인된다. 또한 대정현의 거옥악봉수 또한 삼매양봉수가 아닌 호아촌봉수와 연결되는 노선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동쪽 지역에서는 지밀산봉수가 서산봉수와 연결되고 역으로 입산봉수는 정의현의 수산봉수와 연결되는 등 다소 비효율적인 모습의 노선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봉수 노선간의 비효율적인 체계와 함께 봉수 시설에 대한 정비 과정 또한 확인된다. 세종대에 23처의 봉수가 확인되는 반면 『東國輿地勝覽』에는 제주 9처, 정의 10처, 대정 5처로 총 24처의 봉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를 『세종실록지리지』와 비교하면 설치 숫자만으로는 정의현의 봉수대는 5곳이 추가 설치되었으며, 대정현의 봉수대는 1곳이 추가 설치되었다.

<표 6> 사료 비교를 통한 조선전기 제주 봉수의 변화

관할읍성	『世宗實錄地理志』	『東國輿地勝覽』	조응관계
제주	東門	沙羅岳	서쪽으로 道道里岳에 응하고, 동쪽으로 별도에 응한다. 동일 봉수로 판단됨.
	別刀	別刀	서쪽으로 沙羅岳에 응하고, 동쪽으로 元堂岳에 응한다.
	元堂	元堂岳	서쪽으로 別刀에 응하고, 동쪽으로 笠山岳에 응한다.
	西山		첼폐
	南門		첼폐
	道道里山	道道里岳	동쪽으로 沙羅岳에 응하고, 서쪽으로 水山岳에 응한다.
	水山	水山岳	동쪽으로 道道里岳에 응하고, 서쪽으로 高內岳에 응한다.
	高內	高內岳	동쪽으로 水山岳에 응하고, 서쪽으로 板乙浦에 응한다.
	郭山		첼폐
	板浦	板乙浦	동쪽으로 高內岳에 응하고, 서쪽으로 대정현 遮歸岳에 응한다.
	笠山	笠山岳	서쪽으로 元堂岳에 응하고, 동쪽으로 정의현 只末山에

			응한다.
		道衣灘	신설. 정의현 只末山에 응한다.
정의	達山	達山	兎山에 응한다.
	岳沙只	吾音沙只岳	餘乙溫에 응한다. 동일 봉수로 판단됨.
	水山	小水山	只末山에 응한다.
	兎山	兎山	錢月論에 응한다.
	狐兒村	狐兒村	三每陽에 응한다.
	三每陽	三每陽	대정현 居玉岳에 응한다.
	只末山	只末山	제주 道衣灘에 응한다.
		南山	신설. 동쪽으로 吾音沙只岳에 응하고 서쪽으로 兎山에 응한다.
		餘乙溫	신설. 小水山에 응한다.
	錢月論	신설. 狐兒村에 응한다.	
대정	仇山	堀山	居玉岳에 응한다.
	居玉岳	居玉岳	旌義縣 三每陽에 응한다.
	貯里別伊	松岳	송악봉수로 변경. 서쪽으로 毛瑟岳에 응하고, 동쪽으로 堀山에 응한다.
	毛瑟浦岳	毛瑟岳	遮歸岳에 응한다.
	遮歸岳	遮歸岳	濟州 板浦岳에 응한다.

하지만 위의 <표 6>에서 두 기록을 비교하여 보면 제주의 西山·南門·郭山 봉수는 철폐된 것으로 확인되며, 반면에 道衣灘봉수가 신설되었다. 정의현의 경우는 南山·餘乙溫·錢月論의 3처의 봉수가 신설되어 운영되었으며, 대정현은 신설이나 철폐보다는 貯里別伊봉수가 松岳봉수 위치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개편된 봉수 노선은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東國輿地勝覽』 근거 제주봉수 노선도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의 봉수 노선 체계는 이전과 다르게 직선적인 노선이 가능하도록 노선 정비가 이루어졌다. 지말산봉수와 차귀악봉수는 동·서쪽의 끝이라는 중요성이 인식되어 기존과 같이 양쪽 지역과 연계한 모습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직선적인 연락체계와 함께 변경된 점은 연락체계가 지역별로 한 개의 봉수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의 경우 기존에는 동문과 남문에서 동쪽과 서쪽의 연락을 각각 받았으나 노선 변경 후에는 사라악으로 정보가 집중되고 있다. 정의현의 경우에는 달산봉수가 중심 봉수대 역할을 했던 것에서 남산봉수대를 신설하고 동쪽과 서쪽의 신호를 받게 하였다.

대정현의 경우 기존의 구산봉수에서 대정현으로 신호를 보내는 내용이 없어서 <그림 3>에서는 노선이 없었으나,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으로 확인한 결과 송악봉수와 연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정현의 경우 기존 저리별이봉수를 송악봉수로 옮기고 중심 봉수대로 송악봉수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모슬악봉수보다 대정현성과 거리가 먼 송악봉수의 효율성의 의문점으로 남는다.

봉수와 더불어 해안가에 설치된 연대 시설은 봉수의 감시구역 밀도를 증첩하는 시설이었다. 해안에 인접하여 설치된 연대는 해안을 감시하면서 적을 추적하면서 최종 상륙지점을 아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다.<sup>117)</sup> 제주도에 설치된 연대는 1680년(숙종 6)에 작성된 『남사일록』에 대다수 등장하는 것으로 이 시기 이전 축조로 파악되고 있으며, 총 38개의 연대가 확인된다.<sup>118)</sup> 하지만 연대는 『朝鮮王朝實錄』에서 봉수와 혼용되고 있다.

煙臺의 등장은 1422년(세종 4)에 慶尙道 水軍都安撫處置使가 봉수의 장소[烽燧之處]에 벽이 없어 적의 침략에 대비할 수 없으니, 煙臺를 쌓아 군사들의 피해를 막고자 청하고 모든 지역에 연대를 쌓게 한 후부터 사용되었다.<sup>119)</sup> 이와 같이 봉수대와 연대는 의미상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봉수대의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연대 자체가 연변봉수의 종류로 따로 불렸다는 점에서 최전방의 변경봉수라고 할 수 있다.<sup>120)</sup> 따라서 제주 연대의 경우에는 연변봉수로 봉수대의 일환으로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앞서 말했던 제주의 봉수는 육지의 내지

117) 신효승, 「조선후기 제주도의 관방체계」, 『역사와 실학』 59, 역사실학회, 2016, 109-111쪽.

118) 제주시·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 계획』, 2015. 20쪽

119) 『世宗實錄』 卷17, 4年 8月 19日 癸卯. “慶尙道水軍都按撫處置使啓: “烽燧之處, 無堡壁可據, 因此或爲賊所掠, 法令雖嚴, 人皆疑畏, 不肯用心瞭望. 請高築煙臺, 上設弓家, 置火砲兵器, 晝夜常在其上, 看望賊變.” 從之, 命諸道皆築煙臺.”

120) 김주홍, 『한국의 연변봉수』, 한국학술정보(주), 2007, 19쪽. 시설물로 煙臺는 연변봉수에서 비상시 炬火를 위해 설치한 석축 등의 시설물로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봉수 혹은 권설봉수로, 연대는 연변봉수로 형식을 나누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 전기 연대의 설치로 생각되는 1510년의 張琳의 啓에서 연대는 현재 제주의 해안가에 설치된 연대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앞의 분석과 같이 봉수 노선 체계의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봉수대로 판단된다. 연대는 조선 후기에 새롭게 방어체제를 개편할 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기록을 통해 조선 전기 제주에 설치되었던 관방시설은 해안가의 감시를 위해 설치한 봉수대가 확인되며, 지역방어를 위한 방호소와 중심 방어성인 3성이 설치되었다. 또한 해상에서 활동하는 왜구의 추격과 함께 상륙한 적들은 협동체제로 공격하기 위한 수전소가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張琳은 제주에 군인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잡색군을 끌어 모아 방어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sup>121)</sup> 관방시설의 개편과 보완작업에는 시간과 물자가 충분히 공급되면 해결될 수 있었지만, 방어 병력의 절대적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 병력을 보내어 방어에 필요한 군인을 보충하는 것이 고려되었다. 이때의 지원 병력이 호남원병인데,<sup>122)</sup> 제주 전체 병력의 5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500명을 관덕정 동쪽에 左右衛軍營을 설치하여 머물게 하였다.<sup>123)</sup>

제주의 관방시설에 대해서 초축은 불분명한 시설이 다수 존재하지만 대규모의 개편이 이루어진 시기는 1510년이였다. 같은 해 4월에 벌어진 삼포왜란으로 조선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추방된 이들이 본거지로 돌아가지 못하면 제주를 약탈할 것으로 예측되었다.<sup>124)</sup> 이러한 가능성으로 당시 부임해있던 제주목사 李堧을 대신하여 張琳을 파견하여 제주의 관방시설에 대한 개편을 진행하였고, 효율적으로 제주의 쏠 해안가에 대한 감시·방어체제를 정비하였다.

중종대에 정비된 제주의 관방체계는 이후 명종대의 천미포왜변과 을묘왜변으로 허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천미포왜변은 1552년(명종 7)에 왜선 1척이 천미포에 정박하여 약탈과 살인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상륙 왜구는 70여 명이었으나 상륙하지 않은 왜구도 백여 명 이상이었다.<sup>125)</sup> 이 사건으로 당시 제주목사인 김충렬을 대신하

121) 『中宗實錄』 卷12, 5年 9月 16日 己巳. “而三邑皆沿邊, 防禦至緊, 軍額有數, 故公私奴子, 在前雜色軍刷出, 今者再度習陣, 則烏合之卒, 罔知號令, 至爲可慮. 有役奴子, 則當時聚合爲難, 不虞之變, 亦難遽合. 防禦寢息間, 三邑各司奴子等, 除身貢, 依軍士例, 常訓率防.”

122) 『耽羅紀年』 卷2, 中宗 7年. “設左右衛軍營 以居湖南援兵.”

123) 『宣祖實錄』 卷121, 33年 1月 9日 甲寅. “濟州援兵, 每年三月初, 京上番騎兵, 除出五百名入送, 自是流來格例.”

124) 『中宗實錄』 卷11, 5年 4月 17日 壬寅. “濟州倭寇之所經行處, 曩於楸子島, 屢獲利焉. 今者三浦倭奴, 未入舊居, 則必遍處海中, 寇掠濟州不已矣, 濟州防禦, 固當倍加措置. 牧使李堧, 儒士而志氣不勇, 倭寇來犯, 則必不能隄備. 判官雖武士, 亦不合防禦, 竝以他人差送何如?” 從之.”



여 남치근을 목사로 보냈고,<sup>126)</sup> 부임하면서 뽑은 군관 5명과 군사 50명으로는 방어가 부족하니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군량·화약·火箭 또한 정해진 수량보다 더 많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또한 남치근은 급한 변란의 경우에는 우수사가 지원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다.<sup>127)</sup> 남치근은 병력과 兵器의 확보 및 全羅道右水營과의 협력체계로 제주를 방어하고자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방어체계의 허실이 드러난 또 다른 사건은 1555년(명종 10)에 발생한 을묘왜변인데, 전라도에서 퇴각한 왜구 1천여 명이 제주를 침공한 것이다. 당시 왜구는 제주와 조천관 사이에 방호소가 설치되지 않았던 화북포에 상륙하였고, 제주읍성을 3일 동안 포위하여 공략하였지만,<sup>128)</sup> 목사 김수문의 반격으로 방어하였다.<sup>129)</sup> 정의현의 작은 포구에 피해를 입힌 천미포왜변과 달리 제주의 중심지인 읍성 방어가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김수문이 제주읍성의 자체 병력으로 방어는 하였으나, 관방 체계상 지원군이 도착하지 않은 제주의 방어 체계에 허점이 보였다는 것은 제주의 방어 시설이 상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던 것과는 달리 제주읍성이 공격당하는 3일 동안 주변 지역의 지원군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을묘왜변 중 일어난 제주읍성 포위 사건은 제주의 방어 성격이 독자적 방어였을 가능성이 있다.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감시시설인 봉수대와 이와 연계한 방호소가 지역별 방어를 담당하며, 3성이 중심 성의 역할을 하는 제주의 방어 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의 군인들로만 제주의 관방 시설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육지의 병력지원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가 독자적인 지역 방

125) 『明宗實錄』卷13, 7年 5月 30日 辛亥. “旌義縣監金仁馳報內: ‘縣南距二十里, 兎山候望軍來告云: ‘荒唐大船一隻, 自南大洋, 指向川尾浦.’ 故軍馬整齊進去’ 云, 州東西面五防護所及大靜縣傳通後, 臣亦以判官軍馬整齊, 川尾浦馳進, 則中路金仁飛報又到: ‘荒唐船到川尾浦下陸’ 云. 臣到浦則倭人等殺浦口居人, 掠取財物. 金仁始戰, 臣以所率軍士, 同力接戰, 金仁擒倭一名. 日暮大雨, 倭人退去, 故結陣待明, 而下陸接戰之倭, 幾七十餘名, 船上列立者幾百餘名, 船內則其數難知. 事甚急遽, 故大概爲先馳啓. 且本道倭變, 近古所無, 而遽至於此, 勝負難必. 三邑之軍, 本多絕戶, 臣亦不識兵務, 難堪主將之任, 至爲可慮.”

126) 『明宗實錄』卷13, 7年 5月 30日 辛亥. “連源等啓曰: ‘忠烈乃文人, 不能善禦, 請遞之, 而遣李玪代之.’ 玪目不知書, 材器庸劣, 非出奇克敵之才也. 且未識聞君命即就途之義, 率其妾, 逗遛于中途, 不即馳去. 尹漑聞而啓請罷之, 以南致勤代送.”

127) 『明宗實錄』卷13, 7年 6月 6日 丁巳. “今此來寇濟州之倭, 實非商賈之類, 嚴備形名, 戰具, 其謀難測. 況本州軍民懦弱, 怯於戰鬪, 防備疎漏. 加以年凶, 凡軍糧, 器械, 一切俱虛. 前抄軍官五人, 軍士五十名, 決不能防禦, 請加定帶行. 且軍糧, 火藥, 火箭, 亦加量數持去, 且如有不虞之變, 而馳啓申稟, 則動經時日, 凡臨機處置事, 與兵, 水使, 便宜議處後啓聞. 且有急難, 則兵, 水營相距不遠, 可以兼治. 請令右水使馳救.”

128) 『耽羅紀年』卷2, 明宗 10年. “倭賊來侵 金秀文等擊破之. 時 倭賊六十餘艘 連陷全羅道長興康津等八鎮. 因來犯禾北浦[州東] 圍州城三日.”

129) 『明宗實錄』卷19, 10年 7月 6日 戊戌. “濟州牧使金秀文狀啓: 六月二十七日, 倭賊無慮千餘人, 下陸結陣. 臣抄率驍勇軍七十人, 突入陣前, 相距三十步. 倭人中箭者甚多, 而尙未退兵, 定虜衛金直孫, 甲士金成祖·李希俊, 保人文時鳳四人, 馳馬突擊, 賊軍潰散. 有一倭將, 着紅毛頭具, 【盔也.】自恃其能射, 獨不退北, 正兵金夢根射中其背, 卽顛仆. 我軍乘勝追擊, 斬獲甚衆”.

어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왜구들이 제주를 공략하도록 하고 남해안을 지키는 판단과 다를 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을묘왜변 전에 있었던 제주 방어에 대한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⑪ 또 제주에 변이 있게 되면 加里浦僉使가 구원 나가야 할 것을 비변사가 이미 의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적의 強弱을 멀리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리포 첨사가 들어간 다음에도 사세가 단독으로 구원하기 어렵다면 또한 잇달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조정에 아뢰고서 한다면 반드시 여러 날이 걸리어 일이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곧바로 제주 및 가리포의 통보를 기다려서 차차로 들어갈 일을 또한 미리 계획하여 자세하게 조치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제주에서 쉴 태우면 날씨가 맑을 적에는 黃魚川 등지에서는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사이는 봉화불 올리는 일을 전연 거행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또 이전의 버릇대로 한다면 비록 불을 피우더라도 구원하게 될 리가 만무하니, 따로 水使의 군관을 정하여 날마다 망보게 할 것을 특별히 조치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sup>130)</sup>

⑫ 왜구들이 제주에 모여 들 때에 그곳의 병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가리포 첨사가 마땅히 먼저 나아가 구원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도 사세가 또한 그것만으로는 구원하기가 어렵게 된다면 마땅히 계속해서 구원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닷가 고을의 수령 및 兵使·水使·虞候 중에 활 잘 쏘는 용감한 사람을 가려서 差任하여 미리 繼援將으로 정해 놓고 바로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가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 구원하게 할 것을, 비변사로 하여금 절목을 마련하여 통지하여 알리게 함이 합당합니다. 黃魚川의 伏兵處에서 봉화를 올리는지를 망보게 하는 일은 변장으로 하여금 특별히 더욱 조치하게 하는 것이 또한 합당합니다.<sup>131)</sup>

사료 ⑪과 ⑫를 종합하여 보면 제주의 구원과 지원체계 및 제주와 남해안 간의 봉수 노선 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주에서 봉수를 올렸을 때 남해안의 황어천

130) 『明宗實錄』 卷18, 10年 1月 11日 丁未. “且濟州有變, 則加里浦僉使救援事, 備邊司已議定矣. 然寇之強弱, 亦難遙度. 僉使入歸之後, 勢難獨救, 則不可不又有繼之者矣, 而若稟于朝廷而爲之, 則必經旬日, 事必稽緩. 直待濟州及加里浦之報, 次次入去事, 亦不可不預爲之計, 詳悉處置也. 且濟州燔柴, 則日晴之時, 可見於黃魚川等處云, 近來烽燧之事, 全廢不舉. 今若復踵前習, 則雖燔其柴, 萬無可援之理. 別定水使軍官, 逐日看望事, 不可不別爲措置也.”

131) 『明宗實錄』 卷18, 10年 1月 12日 戊申. “倭寇萃于濟州, 兵力不能獨當, 則加里浦僉使, 當先赴援, 此亦勢難獨救, 則亦當有繼援. 沿海守令及兵·水使, 虞候, 有弓力勇敢者, 擇差預定, 繼援將直待通報, 領兵入援事, 令備邊司, 節目磨鍊知會爲當. 黃魚川伏兵處, 瞭望燔柴事, 令邊將, 另加措置亦當.” 傳曰: “臺諫所啓軍糧措置事, 依議得爲之.”

에서 관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며, 급변 시 가리포첨사의 구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체계의 마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왜구가 대규모로 제주를 침공할 때 가리포 첨사가 바다를 건너 구원하는 것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주에서 자체 방어를 통해 수일간을 버티도록 하는 전략의 마련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특히 황어천의 복병처에 군사를 두어 망보게 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자고 하는 논의 등은 한라산 봉수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후대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⑬ 평일 제주에 적변이 있으면 본주에서 봉화를 피워 변을 보고할 경우 전라도에서는 수령을 장수로 정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배를 타고 가서 구하는 규례가 있는 것 같다. 黃魚川에도 복병을 두었는데, 이런 규례가 지금도 여전히 있어 폐지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제주의 피폐가 요즈음에 더욱 심한데 조정에서 염려할 겨를이 없어 수령을 선택함에 있어 더러 미진함이 있고 法外의 폐단을 또 엄히 다스리지 못하여 서이다. 이런 것을 그치지 않으면 본주는 곧 스스로 궤멸하는 폐단이 있게 될 것이다.<sup>132)</sup>

사료에 따르면 제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어 체계로 한라산봉수가 존재했었음이 더욱 확실하지만, 앞의 ⑪~⑬의 기록들은 제주에 설치된 봉수의 역할이 왜구 침입에 대한 제주와 남해안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 제주에 한시적이거나 운용되었을 한라산 봉수(연대)의 置廢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한라산 봉수의 置廢와 역할

제주의 관방 시설은 크게 적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방호소와 수전소 및 성이 있으며, 적을 미연에 감시하여 방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 봉수대의 존재가 확인된다. 제주의 방어체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보이는 봉수의 존재가 제주 내에서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존재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132) 『宣祖實錄』 卷137, 34年 5月 12日 己酉. “平日, 似有濟州有賊變, 則本州焚燧報變, 全羅道以守令定將卒兵船往救之規, 黃魚川亦有伏兵. 未審此等之規, 今亦仍存不廢否也. 濟州疲弊, 比來尤甚, 朝廷念慮, 無暇及此, 守令之擇, 或有未盡, 法外之弊, 又不痛繩. 若此不已, 本州將有自潰之弊”

본토와 멀리 떨어진 제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의 침입과 그를 구원하기 위한 지원 병력의 파견을 위한 대비책으로 봉수가 운용되었을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제주를 침입한 적이 방향을 틀어 남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전략의 운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를 구원하기 위한 가리포 첨사의 역할이 상정되어 있고, 황어천에서 제주를 관측하여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가리포 첨사의 제주 지원은 한라산 봉수가 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리지에 기록된 봉수들은 대개 중산간 지역에 설치되었던 만큼 제주에서 관측할 수 있는 동북 방향의 바다에 대한 가지거리가 좋은 편이다. 그러나 해발고도 225m 정도의 만조봉수의 관측 거리가 53.5km<sup>133)</sup>인 반면 완도와 제주의 거리가 약 81km 이상임을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해안가의 연대와 오름에 설치된 봉수들이 불이나 연기로 연락을 보내더라도 제주내의 봉수만 연락될 뿐 추가 지원이 와야 하는 육지와는 물리적으로 연락이 불가능하였다. 그렇다면 남해안과는 어떻게 연락을 취하였을까 하는 의문은 다음의 사료에서 제주의 또 다른 유형의 봉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⑭ 옛날에는 한라산 허리에도 하나의 봉수대가 있어 해남의 백도에 미치어 완급을 통보하였으나, 해무가 항상 자욱하게 덮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철폐하였다.<sup>134)</sup>

⑮ 한라산 중봉에 예전에 봉수대가 있어서 추자, 보길도, 관두봉수와 상응하여 변고를 알렸는데, 바다가 어두우면 서로 준거할 수 없어 혁파했다. 이제 보니 해가 지면 추자와 보길도가 완전히 서로 마주한다. 차아산의 북로 봉수와 비교하면 크게 나운데 폐지하였으니 애석하다.<sup>135)</sup>

『南宦博物』과 『增補耽羅誌』의 내용에 따르면 육지와 연계한 봉수대의 위치는 지리지와 현재 알려진 봉수와 달리 또 다른 하나의 봉수대가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36)</sup> 사료에 보이는 한라산봉수는 첫째, 해남의 백도와 연결된 노선

133) 신호승, 앞의 글, 2016, 108쪽.

134) 이형상, 『南宦博物』, 烽燧條. “古有一烽於漢拏山腰. 及海南之白梁以通緩急矣海霧常幕今皆撤罷.”

135) 『增補耽羅誌』, 烽燧·煙臺條. “漢拏中峰 舊有烽燧 與楸子甫吉島館頭烽相準報變. 以其海暗不相準 革罷. 今見 暗日則楸子甫吉島宛然相對. 與嵯峩山北路烽燧 比之大勝 廢之可惜.”

136) 사료에서 한라산 중턱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봉수대를 ‘한라산봉수’로 잠칭하여 서술하겠다.

일 가능성과 두 번째는 한라산-추자-보길-관두를 잇는 노선으로 보인다. 관두봉수는 진도 여귀산봉수에 신호를 보내고 다시 전라우수영 관할인 진도 침찰산으로 연결되어 해남을 통해 북으로 연결되는 봉수 노선에 속해 있었다.<sup>137)</sup> 기존에 확인되지 않던 제주와 육지 간의 연결 노선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며, 한라산봉수의 관측 범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제주를 구원하기 위한 호남원병의 진출로와도 관계가 깊다.

해발고도에 따라 관측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한라산봉수의 위치는 제주의 다른 봉수와 해발고도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료 내용을 뒷받침할 다음의 그림들에는 그 봉수대로 추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표기해두었다. 각기 지도들에는 ‘烟臺’, ‘古烟臺’로 표기된 부분들이 확인되며, 위치상 『남환박물』과 『증보탐라지』에 기록된 봉수로 판단된다. 고지도와 사료를 근거로 보면 한라산봉수의 위치는 한라산 정상 바로 밑 계곡의 동쪽과 3갈래로 갈리는 계곡의 동쪽으로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 지도들 중 연대의 서쪽에 있는 두레왓을 기준으로 두레왓이 낀 계곡의 동쪽 건너편에 봉수지로 보이는 지형은 삼각봉 내지 왕관릉으로 불리며 도내에서는 육안으로도 확인된다.

『耽羅巡歷圖』의 제주조점은 단순 위치만이 아닌 여러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탐라순력도』에서 순력이란 관내 고을의 풍속과 민생을 직접 시찰했던 관찰사의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군사권과 행정권을 지녔던 관찰사의 순력은 임금을 대신하는 지방관으로서의 주요 임무였다.<sup>138)</sup> 또한 제주는 군마 공급지이자 군사방어지로서 중요도가 큰 지역이었던<sup>139)</sup> 만큼 순력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었을 것이다. 순력장면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각종 정보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sup>140)</sup> 또한 이형상 본인도 실용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sup>141)</sup> 순력과정 뿐 아니라 주변 지형이나 지리 정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sup>142)</sup>

137) 김주홍, 앞의 책, 2010, 258-2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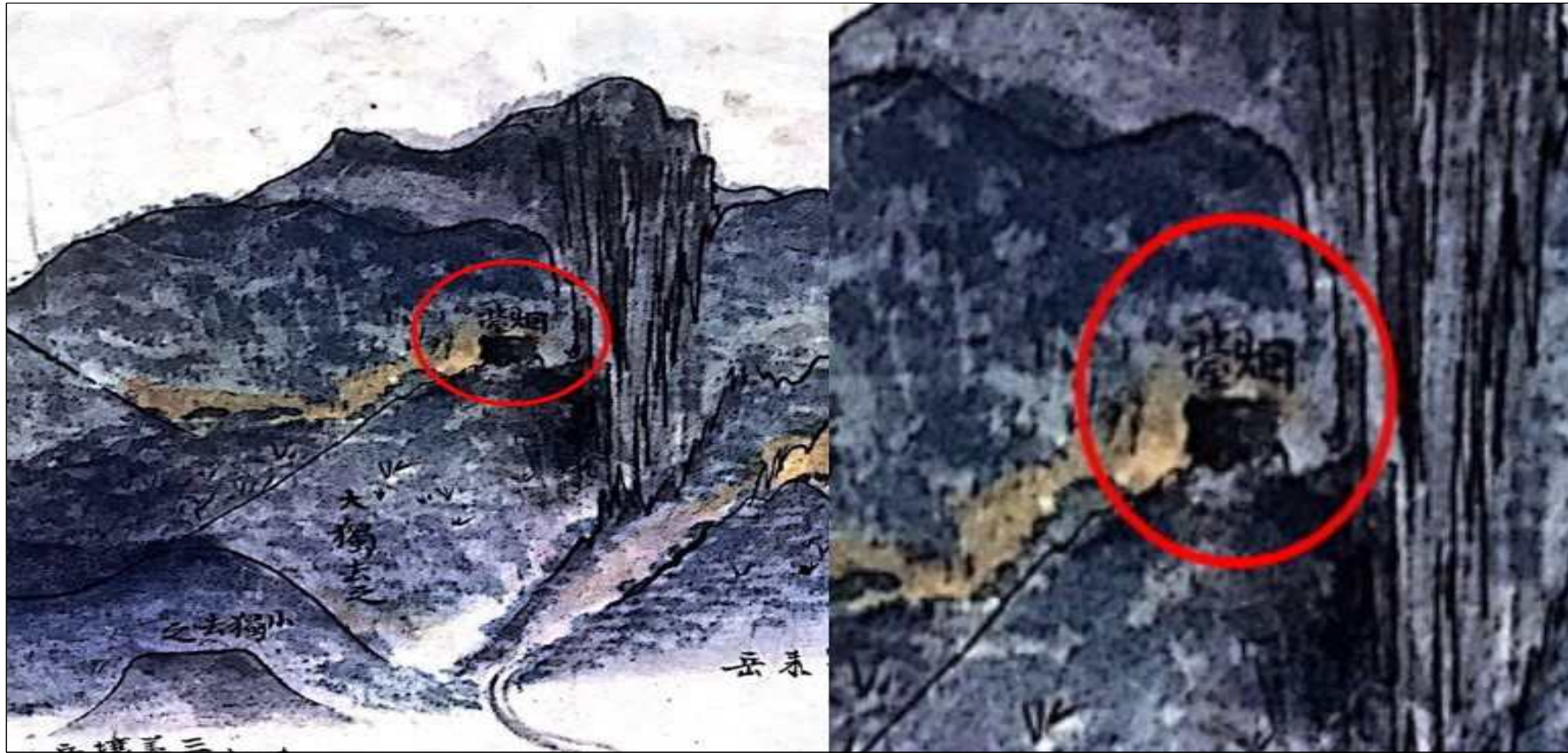
138) 김태호, 「『耽羅巡歷圖』의 지형경관에 투사된 지형인식」, 『탐라문화』 5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180쪽.

139) 윤민용, 「18세기 『耽羅巡歷圖』의 제작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연구』 3,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1, 42쪽.

140) 윤민용, 앞의 글, 2011, 54쪽. 그는 『耽羅巡歷圖』의 성격을 실증적이면서도 기록적인 성격이 높아, 각종 관아, 읍성, 봉수, 연대 등의 위치를 정확히 묘사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141) 차미애, 「근기남인서화가그룹의 금강산기행예술과 낙서 윤덕희의 『금강유실록』」, 『미술사논단』 27, 한국미술연구소, 2008. 근기남인서화가에 속한 예술인들은 지리와 역사, 여정에 대한 기록과 유물, 유적 그리고 금강산의 물, 돌, 봉우리 등 다양한 형태를 묘사하는 등의 세세하고 세밀한 예술 활동을 통해 다른 예술인그룹과 다른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윤민용, 위의 글, 2011, 45쪽.

142) 윤일이, 「『耽羅巡歷圖』를 통해 본 제주 3성의 건축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 대한건축학회, 2008, 114-170쪽.



[그림 5] 『耽羅巡歷圖』<sup>143)</sup> 중 濟州操點의 烟臺

濟州操點은 제주읍성에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제주읍성 내 관청 건물의 위치가 확인되며 그림의 상단부분 한라산 중간의 능선에 직사각형 모양의 烟臺가 확인된다.

143) 제주목관아 홈페이지 탐라순력도 체험관 <http://www.jeju.go.kr/mokkwana/tamla/history.htm>



[그림 6] 『耽羅地圖』<sup>144)</sup>(이규성, 1709년)의 烟臺

『耽羅地圖』는 목판본으로는 가장 오래된 제주 지도로 그림과 함께 지리정보를 그림 위아래에 적어 두어 地理志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sup>145)</sup> 지도의 중심부 백록담의 북쪽 계곡 상단부에 烟臺가 확인된다.

144)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 고지도-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2020, 21쪽. 일부 편집

145)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옛지도』, 1996, 8쪽.



[그림 7] 『濟州地圖』<sup>146)</sup>(1700년대 초반)의 烟臺

1700년대 제작된 지도로 해안가의 봉수대 마다 명칭을 일일이 기록해두어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sup>147)</sup> 『耽羅地圖並書』와 동일하게 백록담 북측 계곡 상단부에 烟臺가 확인된다.

146)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앞의 책, 19쪽. 일부 편집

147)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앞의 책, 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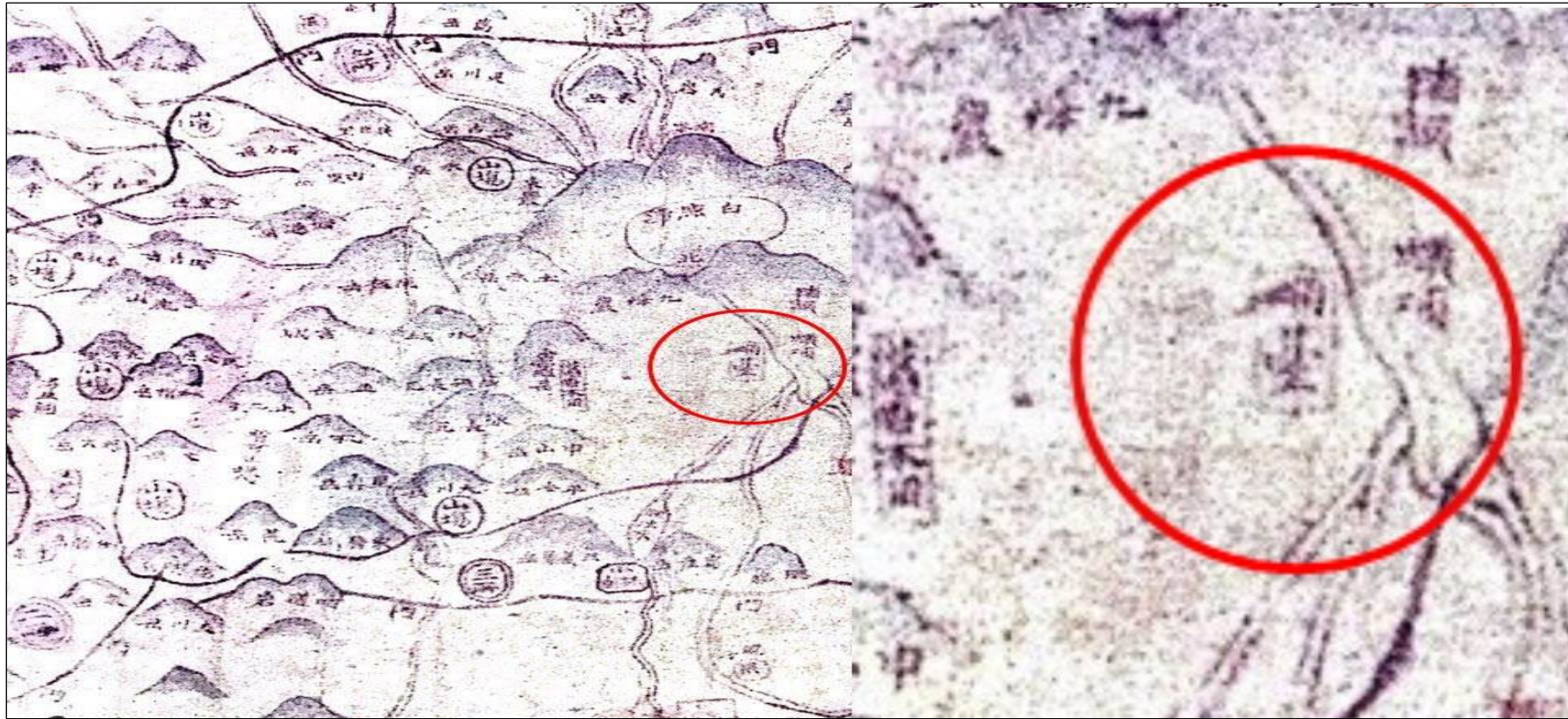


[그림 8] 『海東地圖-濟州三縣圖』<sup>148)</sup>(1750년경)의 烟臺

제작될 당시 제주읍에 보관하고 있던 목판본 지도 중 하나인 『耽羅地圖並書』를 채색을 가미하여 모사하였다.<sup>149)</sup> 『耽羅地圖並書』와 동일하게 백록담 북측 계곡 상단부에 烟臺가 확인된다.

148) 제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20, 24-25쪽. 일부 편집

149)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앞의 책, 1996, 14쪽.



[그림 9] 『耽羅地圖并識』<sup>150)</sup>(이원조, 1841년)의 煙臺

『耽羅地圖並書』를 그대로 모사한 지도로 이원조가 1841년에 제주목사로 부임하면서 제작한 지도이다.<sup>151)</sup> 『耽羅地圖並書』와 동일하게 백록담 북측 계곡 상단부에 煙臺가 확인된다.

150) 제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20, 65쪽. 일부 편집

151)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앞의 책, 1996, 26쪽.



[그림 10] 『濟州三邑全圖』<sup>152)</sup>(1872년)의 古烟臺

1872년 전국 지도 제작의 일환으로 만든 제주 지도이다. 외세와의 무력충돌 이후 군사시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제작되었다.<sup>153)</sup> 백록담 북쪽에 세 갈래 계곡 시작점에 古烟臺가 확인된다.

152) 제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20, 44-45쪽. 일부 편집

153)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앞의 책, 1996, 44쪽.



[그림 11] 濟州地圖<sup>154)</sup>(1872년)의 古煙臺

『濟州三邑全圖』중 제주목 부분만 확대 되어서 그려진 지도이다.<sup>155)</sup> 『濟州三邑全圖』와 동일한 지형에 古煙臺가 확인된다.

154) 제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20, 46-47쪽. 일부 편집

155)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앞의 책, 1996, 46쪽.



<그림 12> 왕관룡 원경; 해발고도는 1666.3m에 해당한다(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

실용적인 학문 소양을 지니고 군사·지리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이형상의 『탐라순력도』는 제주를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그려냈다. 이러한 이유로 『탐라순력도』는 옛 제주를 연구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2>와 같이 왕관룡의 모습은 원경에서 직사각형의 성곽과 비슷하게 보이며, 「제주조점」에 등장하는 연대가 왕관룡과 동일하게 그려져 있다. 따라서 왕관룡 자체가 연대로 판단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형상이 기록했을 때의 판단은 왕관룡에 연대가 위치했기 때문에 지도에 왕관룡을 그리고 위에 연대라는 단어를 표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왕관룡 현장답사 결과 북쪽에서 봉수 터로 추정되는 위치에는 다음의 <그림 13>과 같이 모 통신사의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 봉수대의 잔존 유구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지국의 기단을 둘러싼 석재에 가공된 흔적이 있고, 가공된 석재가 기지국 기단을 원형으로 둘러놓은 상태를 확인하였다. 한라산봉수가 실재했다면 이 원형의 흔적이 봉수대를 구성하는 壇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왕관룡 일대에서 유일하게 기지국 주변으로 불에 타거나 火痕이 있는 석재들이 확인되는데 이것들을 종합하였을 때 한라산봉수가 실재했었던 위치로 비정할 수 있는 근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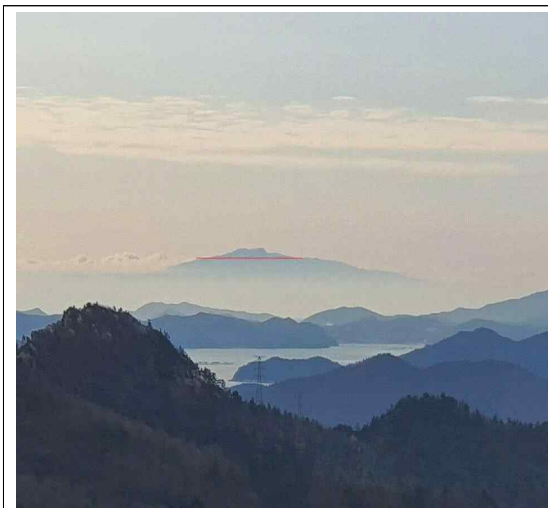


[그림 13] 왕관릉 북쪽 기지국



[그림 14] 기지국 주변 다듬어진 석재와 불에 탄 흔적

지도와 사료들을 토대로 왕관릉을 한라산봉수로 위치를 비정해 보았으며 현장답사를 통해 한라산봉수의 잔존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실제 왕관릉의 위치가 봉수대로 적합한지는 의문이 있다. 실제로 연락을 받아야 하는 남해안에서 관측되는 제주는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약 1000m 이상의 고지만이 관측이 된다. 아래의 그림을 확인하면 왕관릉은 백록담을 기준으로 약 3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림 15>의 빨간줄로 표시한 라인이 왕관릉이 위치한 해발 1600m고지이다.



[그림 15] 남해안에서 관측된 한라산과 해발 1600m고지 (제공; 천기철 작가)



[그림 16] 남해안에서 관측된 한라산 원경 (제공; 천기철 작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라인 아래로부터는 한라산의 모습이 점점 더 흐려 지므로 이 고도 밑으로 봉수대가 설치되면 육안으로 관찰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산간지대 이상의 고도에 봉수대가 설치되어야 했다. 또한 주변 지역이 험난한 경사를 지닌 것과 달리 왕관릉은 평평한 지형을 이루고 있어 시설물을 설치하기 용이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라산봉수의 실재여부는 앞선 분석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바다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한라산봉수에서 불을 붙였을 때 봉수 노선의 활용 가능성 여부이다. 앞의 『남환박물』과 『증보탐라지』에서 등장한 봉수 노선은 제주-추자-보길-관두의 순서로 이어지게 된다. 이형상이 말한 白道島의 경우도 甫吉島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 노선의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추자도의 경우에는 하추자도 중심 부분에 위치한 墩臺山(164m)가 확인되는데 실제로 추자도에 봉수대의 설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墩臺山이라는 지명 자체에서 봉수대가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추자도의 墩臺山 또한 과거에 墩臺가 설치되어 봉수대를 겸했다고 볼 수 있다.

보길도의 경우에도 섬에 남쪽에 위치한 격자봉에 봉수지가 위치하고 있고, 관두의 경우에도 관두산봉수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에서 나타난 제주와 육지와 연결한 봉수노선의 체계가 지역별로 존재하고 있다. 더불어 노선 상에 위치한 섬들끼리의 조망은 가능하며 추자도와 보길도에서도 위 <그림 15>와 같이 한라산이 동시에 조망된다. 따라서 왕관릉에서 시작한 봉화가 하추자도와 보길도를 거쳐 관두산봉수에 이어지게 되어 최종적으로 가리포 첨사가 제주를 구원해 주는 체계를 구축해 두었던 것이다.

『탐라순력도』에 그려진 한라산봉수는 「제주조점」 장면 뿐 아니라 제주 전체를 그린 「한라장축」과 「건포배은」, 「병담범주」의 4장면에서 확인된다. 이것은 이형상이 한라산봉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장면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각 장면에서 주요 관방시설 및 경승에 대한 표현만으로도 조선후기 제주사회를 조망할 수 있지만, 한라산봉수가 『탐라순력도』 제작 이전에 초축되어 운영되어 왔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형상이 제주목사로 부임하기 이전에 설치되어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라산봉수는 이외의 기록에는 그 설치나 운영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 한라산봉수의 초축·폐지에 대해서는 추정으로만 시기 비정이 가능한데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한라산봉수의 초축·폐지 가능성은 고려 말 초축되어 1454년(단종 2) 이전 시기 폐지의 경우이다. 봉수체계가 설치되기 전 제주에는 戌가 설치되어 운영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戌는 기록에 남아있는 1286년(충렬왕 12) 이후에는 보이지 않다가 이후 1302년(충렬왕 28)에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에 봉수를 설치했다는 기사로 보아 제주 戌가 봉수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공민왕과 우왕대에 명나라의 조서로 인하여 바닷길에 대한 방어가 더욱 철저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때 남해안 조망 혹은 제주 방어에 대한 상황 보고를 위해서라도 한라산봉수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 말 시기로 한라산봉수의 초축 가능성도 1302년 이전이거나 원나라의 요구가 있었던 1367년(공민왕 16)과 명나라의 요구가 있었던 1387년(우왕 13)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1302년에 공민왕이 남해안에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봉수를 설치했는데 이때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국의 요청으로 서해안으로 나가는 바닷길의 방어가 절실해졌고 방어 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던 1367년(공민왕 16)을 기점으로 하여 한라산봉수가 설치되고 왜구의 침입을 감시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폐지에 관련해서는 세종 25년 이후 왜구의 침입이 감소하면서, 서남지방의 해안가 연대의 중요성이 낮아졌고 봉수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태도가 나태해지면서 봉수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었다.<sup>156)</sup> 이러한 연유들이 봉수제도에 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세종은 이를 철폐하고자 하였다.<sup>157)</sup> 날씨가 조금만 좋지 않더라도 구름이 끼는 한라산 정상 부근의 환경적 특성상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철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세종 시기에 봉수가 폐지됨으로써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봉수 이름 중에 한라산봉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한라산봉수가 지리지 작성 이후 설치되었을 가능성이다. 세종 이후 잠잠했던 왜구들이 중종대에 와서 삼포왜란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왜구에 대한 방어책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보인다. 그것은 남해안에 성을 축조하고 거점방어 개념으로 왜구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사료 ⑪~⑬에

156) 李存熙, 앞의 글, 1999, 781 - 782쪽.

157) 『世宗實錄』卷111, 28年 1月 26日 甲午. “上謂右贊成金宗瑞曰: “烽火, 所以應事變也. 前日烽火再舉, 而終無變, 且或有邊警, 而烽火不報. 是則烽火無益於事, 不若不行之爲愈也. 如不可廢, 則不可如此緩弛.” 宗瑞曰: “今烽火干, 每處只有殘亡一二人, 且不以烽火爲守令功過, 故致此陵夷. 若每處各定六名, 分爲三番, 又擇定監考, 兼責守令, 則庶乎可矣.” 命更加商議以啓”.



보이는 것과 같이 왜구의 침입에 대해서 제주를 지원하기 위한 진영을 가리포로 정해져 있는데 가리포는 1522년(중종 17)에 성을 쌓아 방어지로 이용되었다.<sup>158)</sup> 또한 선조가 제주와 육지간의 봉화노선에 대한 법이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한라산봉수가 고려시대에 초축되었다면 굳이 이 시기에 관련 법령을 의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된 이후에 초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가리포에 鎭이 설치된 1522년(중종 17)에 제주와 가리포 간의 연결 노선이 정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철폐 시기는 선조가 제주와 육지 간 봉화 노선에 관해서 논의되는 시기를 전후로 보인다. 선조는 김상헌을 제주로 보내면서 내린 조목에 한라산봉수 노선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은 지 여부를 살펴보라고 지시를 내리지만,<sup>159)</sup> 이후 한라산봉수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 봉수의 재설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한라산봉수의 철폐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다음의 사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⑩ 제주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저번 흉년에 백성들이 많이 죽어 만약 적변이 생기면 안에는 守卒이 없으므로 조정에서 加里浦僉使와 珍島郡守로 濟州援將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원병이 제주에 도착했을 때 적이 곧바로 가리포와 진도를 칠 경우, 성을 지키는 假將이 있다 하더라도 사졸들이 가장의 명령이라 하여 듣지 않는다면 일의 시기를 놓쳐 순식간에 결단날 것입니다. 성을 함락당하고 땅을 잃는 화가 있는 다음 후회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적변의 소식이 있을 때 鎭과 城을 떠난다면 민심이 놀라 동요할 것이니, 지난해 崔滌이 경술히 바다를 건너가서 한 고을에 주장이 없어 텅 비게까지 하였던 것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제주에 응원할 장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으나, 어찌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 꼭 가리포 첨사와 진도 군수를 보내야 합니까? 이런 뜻을 비변사에 물어 정확히 헤아려서 마땅하게 조치하게 하소서<sup>160)</sup>

158) 『中宗實錄』卷44, 17年 5月 7日 壬子. “彌助項, 防踏, 加里浦等處, 已令築城. 防禦至緊.”

159) 『南槎錄』, 임금의 재가를 받아 비변사에서 내린 별도로 해야 할 사항 17개 조목 중 15번. “黃魚川 伏兵 焚柴報變 復設便否 看察啓聞事.”

160) 『明宗實錄』卷20, 11年 2月 21日 庚戌. “濟州, 在滄海之中. 頃因飢荒, 人民多死, 如被賊變, 內無守卒, 故朝廷令加里浦僉使, 珍島郡守, 爲濟州援將. 當其援兵到濟州之時, 賊若直搗加里浦, 珍島, 則雖有守城假將, 士卒以其假將之令而不聽, 則事機之失, 決於呼吸. 將有陷城失地之禍, 雖悔何益? 若有聲息之時, 離鎭去城, 則民心驚擾. 去年崔滌徑度碧波, 一邑無主, 將至於空虛, 足以鑑矣. 濟州應援之將, 雖不可不遣, 豈無可遣之人, 而必以加里浦僉使, 珍島郡守而遣之乎? 請以此意, 問于備邊司, 十分商確, 使處置得宜.”

위 사료는 가리포와 진도의 병력이 왜구의 침입 상황에 제주를 구원하게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왜구의 침입에 대해서 방어 지원하기 위해 병력이 출발하여 제주에 도착했을 때, 역으로 왜구들이 방어가 소홀해진 가리포와 진도를 공격하게 되어 위협에 처해질 것을 걱정하고 있음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동격서의 위협으로 인해 제주의 지원체계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방어가 소홀해질 수 있는 가리포와 진도 이외의 장소에서 제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명종대의 제주와 육지 간의 봉수 노선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 대에 한라산봉수는 여전히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요충지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봉수대임에도 불구하고 논의만 될 뿐 실질적으로 이용하지는 못했다. 세종 대의 제주 지원은 3주, 명종 대에는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즉 제주는 왜적의 침입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여도 10일 이상의 시간을 자체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sup>161)</sup>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육지에서 제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이었지만, 제주의 지리적 중요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낮은 확률이라도 제주의 상황을 가장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던 봉수체계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한라산봉수를 제주 해안 방어 전략에 있어 자체방어를 할 수 없는 경우 육지와 연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파악하였다. 한라산봉수에서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지원이 오는 것은 비현실적인 문제였으며, 또한 가리포와 진도에서 제주를 구원하려 가더라도 두 지역의 방어가 허술해지게 되어 역으로 위협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추가적으로 제주 방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라산봉수의 운영 여부에 대해서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은 한라산봉수를 올릴 정도의 급변 상황이 없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161) 신효승, 앞의 글, 2016, 121쪽.

## IV. 결론

왜구는 고려시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왜구에 대한 다수의 기록들을 통하여 그들이 한반도에 입힌 피해를 확인할 수 있다. 왜구는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으로 침략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국제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양상 또한 확인된다. 왜구의 침입은 단순한 약탈의 형태에서 점차 거점지를 확보하려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방어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되게 되었다. 이러한 왜구의 변화되는 활동에서 한반도의 서남해안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의 방어는 한반도와 중국의 對 왜구 방어 전략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II 장에서는 고려 시기부터 발생한 왜구의 약탈 활동이 한반도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구는 고려와 조선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 이상으로 중국으로 침략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피해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태종 시기에 왜구는 旅順지역을 공격하여 명나라에게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했다. 이런 왜구로 인한 피해로 인해 명나라는 직접 근거지를 토벌하고자 했으며, 중국의 움직임은 조선 또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일본과의 외교적 교류를 통해 왜구의 활동을 막고자 하였으며, 대마도를 공격하여 왜구의 근거지를 소탕하고자 하였다. 이후 세종대에 2차에 걸친 대마도 정벌을 비롯하여 왜인들에 대한 유화정책을 통하여 왜구의 활동은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왜인들에 대한 유화정책은 조선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게 되었고, 성종대에 유화정책의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된 왜인들이 생기게 되면서 삼포왜란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삼포왜란 이후 발생한 을묘왜변의 경우 전라남도의 막대한 피해와 함께 주변 군현의 방어체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야기했다. 을묘왜변의 주체는 기존의 일본의 왜구가 아니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근거지를 잡고 약탈행위를 하던 왜구였다. 舟山列島의 근거지가 명나라에게 밀려나면서 일본의 큐슈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 시기의 왜구는 대마도 혹은 일본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국제적인 해적집단이었다.

삼포왜란과 을묘왜변을 기점으로 더욱 주목받은 지역이 제주이다. 삼포왜란이 끝나고 난 뒤의 논의에서 근거지를 잃게 된 왜인들이 제주를 침략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었다. 또한 을묘왜변의 과정 중에서는 실제로 전라남도에서 퇴각한 왜구들이 재정비 후 제주를 침략하여 제주읍성을 3일간 포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왜구의 제주에 대한 침략의 목적은 지리적 요충지의 장점을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왜구의 넓어진 활동범위에 따라 遠海 항해 과정에서 필요한 물자보급의 거점지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한반도의 서남해안의 많은 섬들은 중간 기착지로 이용이 가능했지만 본토와 가깝기 때문에 공격당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海中에 홀로 떨어진 제주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의 경우 중산간 지대에서 남해안에서 대규모의 군사 이동을 관측하기 용이했던 지형이었던 만큼 왜구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도피처와 중간 기착지가 될 수 있었다. 조선 정부 또한 제주의 지리적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제주가 점령당하게 되면 재탈환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과 단순히 일부 지역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제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목장에서 생산되는 戰馬를 제외하면 경제적 이점이 큰 지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리적 요충지로 관방체계의 중요성은 이른 시기부터 주목되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의 관방시설은 고려말 조선 전기부터 설치·운영되었다.

Ⅲ장에서는 앞의 분석에 따라 조선 전기 방어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제주의 관방시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주의 관방 시설은 고려 말 부터 봉수대의 설치 기사를 통해 이른 시기부터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조선 전기 제주의 방어에 대해서는 열악한 모습이 확인 되고 있어 관방시설의 개편이 시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태종대부터 시작된 3읍 체제 개편 기사와 성의 수축을 통해 방어의 기반을 다졌고, 한승순의 啓와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통해 제주의 방어 시설 체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초기 제주의 방어 체계는 3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중요 지역에는 방호소를 설치하여 지역방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각각의 방호소에는 水戰所를 설치하였고, 水戰所에는 전선을 배치하여 적의 공격에 대해서 육지와 바다에서 협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다. 방호소의 경우에도 설치되었을 당시에는 성곽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후 水山과 遮歸 방호소를 시작으로 축성이 이루어졌고 張琳이 목사로 부임한 기간에 나머지 방호소에 대

한 축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방어력 향상을 꾀하였다. 또한 張琳은 성곽 축조와 함께 김녕방호소를 별방으로 옮기거나 加內의 방호소를 동해방호소에 속하게 하여 지역 방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다.

각각의 방호소는 요해처에 위치하여 적의 상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제주의 부족한 병력의 배치 문제는 방어하는 군인 이상의 적이 침략해 들어오면 고립될 수 있는 약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대비하여 설치되었던 것이 봉수체계였다. 조선 전기 봉수체계는 『세종실록지리지』를 통해 18처의 봉수가 처음 확인되지만, 같은 기록에서 등장하는 봉수명은 23처의 봉수대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제주봉수 노선도의 경우에는 노선이 끊겨있거나 비효율적인 노선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체계 역시 張琳목사 재임 기간에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봉수의 신축과 철폐를 통해 노선체계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제주의 봉수체계에서 특이한 점은 변방의 소식이 한양으로 집중되는 육지의 봉수체계와 다르게 한 곳이 아닌 3성으로 각각 연락이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쪽과 서쪽 끝에 위치한 지말산과 차귀악 봉수와 함께 남쪽의 거옥악과 삼매양 봉수는 양방향으로 신호를 받게끔 되어 있어 3개의 성이 전부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설치되었다.

관방체계의 개편을 통해 제주는 자체적인 방어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주의 지원의 경우에는 방어 병력의 부족으로 호남원병을 보내 제주에서 교대로 상주하게 한 정도만이 확인된다. 제주의 방어 허점은 이후 천미포 왜변과 을묘왜변으로 허점이 드러나게 된다. 방호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왜구가 침입해 들어오면서 천미포지역이 약탈당한 것과는 달리 을묘왜변의 경우에는 제주읍성이 포위당하게 되었고 함락의 위험을 겪게 되었다.

당시 제주목사 김수문이 별동대를 이끌고 적을 물리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과정에서 지원이 없었다는 점은 제주내의 방어에서 조차 연계 없이 독자적인 방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왜변을 통하여 제주의 방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정부의 제주 지원을 위한 봉수체계가 확인되었다. 제주와 육지의 봉수연계는 제주와 남해안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체제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한라산 중봉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육지와 연계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한라산봉수는 추자도, 보길도와 관두산봉수와 대응하면서 변란을 육지로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耽羅巡歷圖』와 여러 고지도에서 기록

과 같이 한라산 백록담 아래 부분에 烟臺 혹은 古烟臺가 표기 되어 이 부근에 봉수대가 위치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도에 표기 된 烟臺의 위치는 백록담 밑의 계곡이 시작되는 동쪽에 표기 되어 있으며, 특히 『耽羅巡歷圖』의 제주조점에서는 그림상단부의 한라산에서 직사각형의 烟臺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현재의 관측되는 왕관릉의 모습이 제주조점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왕관릉 자체 혹은 왕관릉에 烟臺가 위치하였기 때문에 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봉수의 置廢시기에 관해서는 첫째 1367년(공민왕 16)을 기점으로 왜구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초축되어 운영되다가 『세종실록지리지』에 그 명칭이 나오지 않는 것을 통해 1454년(단종 2) 이전에 폐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성종대 왜구들이 다시 활동함에 따라 남해안 일대의 방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특히 제주를 지원한 지역인 가리포에 성이 초축된 시기가 1522년(중종 17)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초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명종대에 제주를 지원하다가 가리포와 진도가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유가 되어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봉수는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고, 현실적이지 않은 지원 체계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은 시설로 보인다. 하지만 비효율적이지만 설치되었던 점과 이후에도 운영에 관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후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고 표기해두었다는 점은 한라산봉수의 중요성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방어의 중요성을 인지했던 정부에서는 자체적인 방어 외에도 지원책에 대해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한라산봉수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신호체계가 추자, 보길도 그리고 남해안에서 관측되기 시작하면서 봉수 노선 체계로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3성 9진 25봉수<sup>162)</sup> 38연대의 기반이 되었던 조선 전기 관방시설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관방시설의 변화에 대해서 검토하던 중 조선 전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라산봉수의 존재는 제주의 방어가 독자적인 방어체제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지만, 제주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최후의 지원 수단으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

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문화유산연구원, 앞의 책,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서귀포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 계획』, 2017. 현재 제주의 봉수대 숫자를 표기할 때의 기준은 18세기에 정비된 조선 후기 봉수대를 근거로 한다. 사라봉수, 원당봉수, 서산봉수, 입산봉수, 왕가봉수, 지미봉수, 도원봉수, 수산봉수, 고내봉수, 도내봉수, 만조봉수, 당산봉수, 성산봉수, 수산봉수, 독자봉수, 남산봉수, 달산봉수, 토산봉수, 자포(자배봉수), 호촌봉수, 삼매양봉수, 구산봉수, 호산봉수, 저별봉수, 모슬봉수.

에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조선 전기 제주의 관방시설 체계와 변화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史料

『高麗史』, 『南槎錄』, 『南宦博物』, 『新增東國輿地勝覽』, 『元史』, 『朝鮮王朝實錄』, 『增補耽羅誌』, 『耽羅紀年』

### 2. 저서

김동전·강만익,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김주홍, 『한국의 연변봉수』, 한국학술정보(주), 2007.

김주홍, 『조선시대의 연변봉수』, 한국학술정보(주), 2010.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5-조선전기 I』, 경인문화사, 2012.

이기백,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68.

제주도, 『濟州道誌』, 2006.

### 3. 연구논문

김경추, 「조선시대 봉수체제와 입지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35, 한국지리교육학회, 2001.

김보한, 「무로마치 왜구와 조선의 대(對)왜인 정책」, 『일본연구』 18,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2.

\_\_\_\_\_, 「“가마쿠라기 왜구”와 “무로마치기 왜구”의 비교 연구」, 『史學志』 49, 단국사학회, 2014.

\_\_\_\_\_, 「고려조선의 對일본 외교와 왜구-13~15세기 금구 외교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7, 한일관계사학회, 2014.

김용욱, 「조선조 후기의 봉수제도」, 『법학연구』 44,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김일우, 「조선시대 제주 관방시설의 설치와 분포양상」, 『한국사학보』 65, 고려사학회, 2016.

김태호, 「『耽羅巡歷圖』의 지형경관에 투사된 지형인식」, 『탐라문화』 5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문준호, 「조선 명종대 을묘왜변에 관한 군과 정부의 대응」, 『군사』 103, 국방부군사



- 편찬연구소, 2017.
- 방상현, 「조선전기의 봉수제-국방상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史學志』 14, 단국대 사학회, 1980.
- 신효승, 「조선후기 제주도의 관방체계」, 『역사와 실학』 59, 역사실학회, 2016.
- 심민정, 「삼포왜란의 발생원인과 대마도」, 『동북아문화연구』 34,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 오창명, 「제주의 봉수 이름 연구」, 『語文學』 95, 한국어문학회, 2007.
- 윤민용, 「18세기 《耽羅巡歷圖》의 제작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연구』 3,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1.
- 윤성익, 「‘후기왜구’로서의 을묘왜변」,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 \_\_\_\_\_, 「조선 초, 명으로의 왜구침구 정보 제공에 대한 조선의 태도-1419년의 왜구 사건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54, 동국사학회, 2013.
- 윤일이, 「『耽羅巡歷圖』를 통해 본 제주 3성의 건축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 대한건축학회, 2008.
- 李存熙, 「봉수제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조선시대를 중심으로」, 『文化史學』 11, 한국문화사학회, 1999.
- 이 영,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한국중세사학회, 2004.
- \_\_\_\_\_, 「고려 말 조선 초 왜구=삼도(쓰시마이키마쓰우라) 지역 해민설의 비판적 검토」, 『일본문화연구』 38, 동아시아일본학회, 2011.
- \_\_\_\_\_,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대구사학』 91, 대구사학회, 2008.
- \_\_\_\_\_,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구」,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 \_\_\_\_\_,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왜구 -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 임용한, 「조선 건국기 수군개혁과 해상방어체제」, 『군사』 7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 전영준, 「삼별초의 항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 정영현, 「여말선초의 제주와 왜구」, 『한국민족문화』 7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차미애, 「근기남인서화가그룹의 금강산기행예술과 낙서 윤덕희의 『금강유실록』」,  
『미술사논단』 27, 한국미술연구소, 2008.

崔韶子, 「元末 倭寇와 元·日關」, 『梨大史苑』 26,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92.

최준식, 「홍무-연간 명-일본의 해상무역과 왜구의 활동」, 『복현사림』 32, 경북사학회,  
2014.

허선도, 「우리나라의 봉수제도」,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및 강연회집』1, 한국통신  
학회, 1990.

홍영호,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戍조사 연구-간성과 강릉을 중심으로」, 『군사』 99,  
2016.

#### 4.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  
활용 계획』, 2015.

\_\_\_\_\_, 『서귀포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  
비·활용 계획』, 2017.

#### 5. 도록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 고지도-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2020.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옛지도』, 1996.

#### 6. 학위논문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 읍성·진성과 봉수·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이동현, 「고려후기 왜구의 발생과 실제 검토」,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2010.

최근락, 「朝鮮初期 왜구의 침입양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09.

#### 7. 기타

제주목관아홈페이지 탐라순력도 체험관 <http://www.jeu.go.kr/mokkwana/tamla/history.htm>